

The 16<sup>th</sup> Asian Athletic Championship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 아시아가 인천에서 하나 됩니다

기간 : 2005년 9월 1일(목) ~4일(일) 4일간

장소 : 인천문학경기장

종목 : 43개 종목 (남자 22개 / 여자 21개)

참가국 : 아시아 45개국

참가인원 : 약 1천명

대회주최 : 아시아육상경기연맹 (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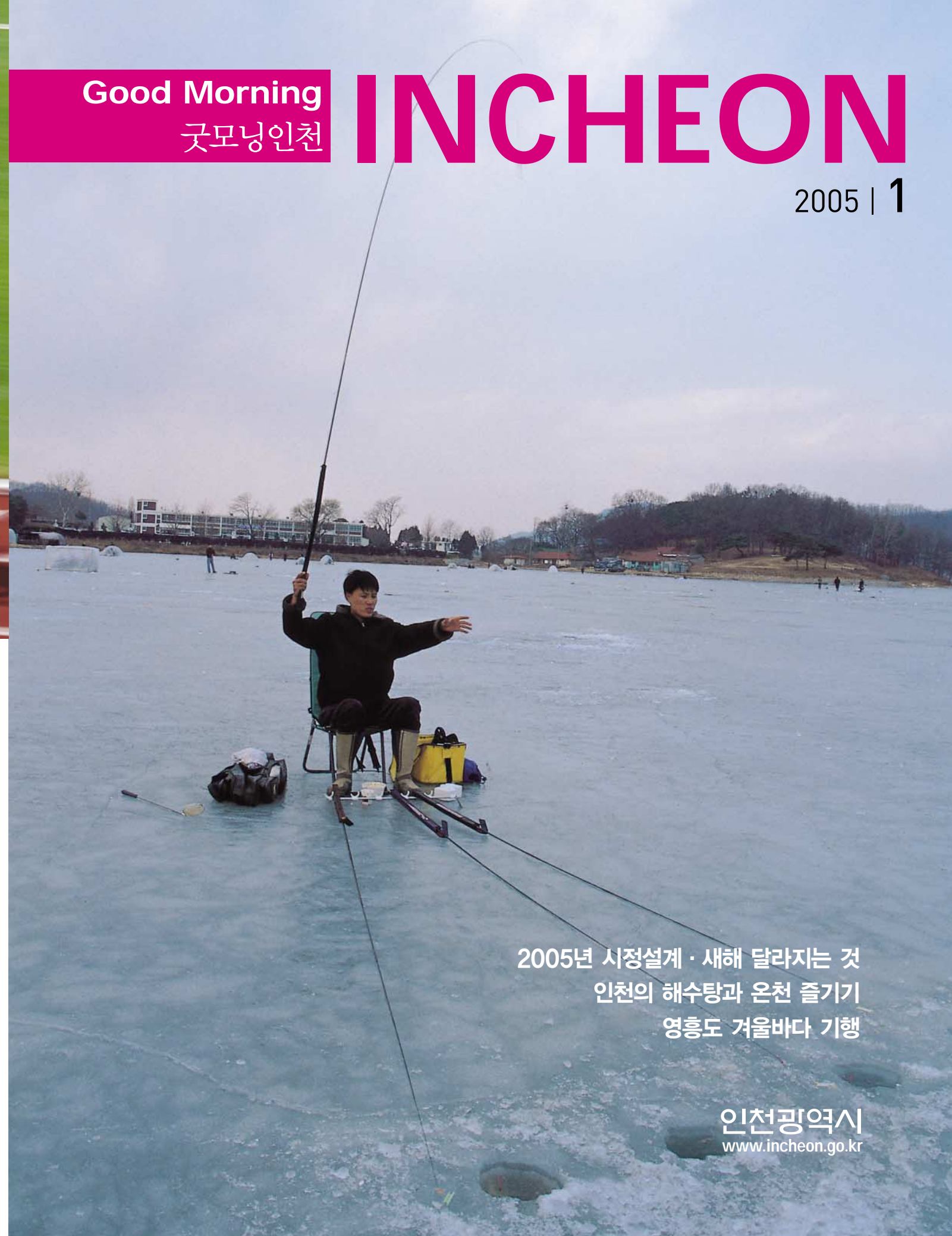
대회주관 : (재)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IAACOC)

문의 : 032) 440-8111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 INCHEON

2005 | 1



2005년 시정설계 · 새해 달라지는 것  
인천의 해수탕과 온천 즐기기  
영흥도 겨울바다 기행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 문화재단 출범 문화도시 출발



문화 때문에 살맛나는 도시, 경제적 중산층보다 문화적 중산층이 더 두터운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인천문화재단이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재단 이사장인 안상수 시장과 최원식(인하대 국문과 교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인천지역 문화·예술계 및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최 대표이사는 출범사를 통해 “인천문화재단은 시정부와 시민이 문화를 매개로 함께 하는 21세기로 나아가는 견여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축사에서 “인천문화재단이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향토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문화향수권을 가꾸 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문화재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 축하무대는 신동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인천시립무용단과 합창단, 바리톤 홍성진, 소프라노 박남연, 국악인 유애란, 벨라트릭스, 소찬휘, 한승기밴드, 녹색지대, 조영남 등이 출연해 화려하게 장식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출범식에 앞서 구월동 우리은행 4층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문의 \_ 433-1710)

## 굿모닝인천

2005.1 (통권 133호)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지영일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김정식(자유사진가)



06



36



48

02窓2005 | 문화재단 출범 문화도시 출발

04 신년사

06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영흥도 겨울바다

10 인천에서 즐겁게 잘 사는 법 | ① 해수탕과 온천

13 조명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추천제품 지정제도

14 이달의 막·上·막·下 | 극단 가람 <물고기 남자> 외

17 현장속으로 | 청결 으뜸골목

18 Good Morning 2005 | 새해 시정설계·새해 달라지는 것

26 굿인천 굿뉴스 | 시청사 담장없애기 사업 외

29 의정소식 | 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폐회

30 군·구 풍향계 | 중구, 신포시장 쉼터 조성 외

3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경제자유구역 건축규제 완화 외

32 정보뱅크 |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

35 한편의 책 | 마이너리티의 희망노래

35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해물사랑

36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⑩ 인천향교

40 아름다운 도전 | ① 아라게이트

42 디카 속 인천풍경 | 100℃까지 쭉쭉~ 올라라

43 인천의 물류이야기 ① |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 인천의 과제

44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① 한국의 축구 발상지

46 앓,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① 노인을 노리는 악덕상술

47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겨울철 낙상 사고

48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열세번째 사람 | 이민숙씨

52 독자마당 | 새해 새출발 나누고 싶은 글

56 Info Box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외

59 여기가 거기 | ① 북성동 차이나타운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새해 희망을 낚는다. (강화의 저수지)



## 변화와 혁신의 성장 동력 창출합시다



존경하는 260만 시민여러분!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들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천은 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사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의 지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와 혁신의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우리 인천을 일류도시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할 사명감을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를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건설'의 비전 하에 시민·기업·정부간 긴밀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세계 일류의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지역균형발전,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지역 정체성과 신뢰사회 형성을 5대 핵심전략으로 정하고 주요 과제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선진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의 핵심성장동력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역량이 최대한 반영되는 참여 자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효과적이고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개성간 연계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성 있는 고품격의 인천의 문화를 형성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기업과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한해, 동북아의 중심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2005년 을유년, 닭의 해는 부디 닭이 몰아온다는 서조(상서로운 조짐)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하는 한해 만듭시다



존경하는 260만 인천광역시민여러분!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대 의회 출범 후 3년째 맞는 해로서 시의원 모두는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여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의정역량을 결집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경제적 안정의 바탕위에서 시민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봉사의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26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강력한 시정의 감시기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회가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관련 사안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금년 한해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권익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을유년 새해아침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 승 숙



# 광활한 네 품에 안겨 새해 꿈 꾸노라

바다는 계절마다 색깔을 바꾼다. 파란 여름은 ‘놀이의 바다’이지만 회색 겨울은 ‘사색의 바다’이다.

넉넉한 품을 열어주며 시린 가슴 단번에 씻어주는 겨울바닷가를 거닐어 보자.

얼굴 가득 겨울 낙조가 물들면 어느새 마음도 불그스레 데워질 것이다.

눈이 내릴 건가. 희뿌연 회색빛이 주위를 감싸 돈다. 문득 겨울바다가 그리워지며 배편에 상관없이 다리를 이용해 갈 수 있는 섬, 영흥도로 향한다. 영흥도는 대부도, 선재도를 징검돌 삼아 건너가는 섬이다.

자동차로 시원하게 내달리며 몇 차례 바닷길을 가른다. 시화방조제, 선재대교, 영흥대교를 건너면 영흥도 진두선착장이 나온다.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는 섬의 출입구였다. 예전에는 나름대로 섬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조그만 낚시배들이 떠 있고 몇 개의 횃집만 덩그러니 있는 쓸쓸한 포구이다. 여기서 오른쪽 바닷가를 끼고 돌면 ‘미니 해안도로’가 나온다. 이름 모를 무인도들이 제 그림자와 속삭이는 것을 감상하며 달리다 보면 십리포해수욕장 쫓말이 길을 안내한다. ‘십리포’라는 말이 눈앞에 거대한 해변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 바다는 삼태기 마냥 조그맣고 아담한 품을 갖고 있다. 해변의 길이가 10리가 아니고 선착장에서 10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철지난 십리포바다 어디에선가 칼바람이 불어오자 파도는 깃 한번 세우지 못하고 바다 속에 잠겨 버린다. 바다도 겨울을 타나보다. ‘우웅’ 한겨울 바다가 토해내는 신음소리와 가슴앓이가 생생하게 전해진다.

십리포에 서면 인천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무의도, 실미도, 팔미도, 송도신도시의 실루엣이 뚜렷하고 인천공항의 관제탑과 이착륙하는 비행기 그리고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외항선의 모습이 선명하다.

십리포가 유명하게 되는데는 소사나무가 한몫 했다. 해변가에 줄지어 서있는 숲은 바다와 물을 갈라놓았다. 바람 탓일까? 아니면 태생적일까? 어느 나무 한 그루도 똑바로 뻗지 못했다. 몸뚱이는 물을 향해 비스듬히 기울었고, 가지는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하늘 향해 뻗어올린 가지들은 풀어헤친 여인네의 머리카락처럼 제멋대로 뻗었다. 흡사 퍼포먼스를 하는 군상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다 끝에 다다르면 횃집 뒤쪽에 산으로 오를 수 있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나왔다. 이 섬의 최고 봉우리 국사봉에 오르는 길이다. 겨울이건만 아직도 길목마다 억새들이 하얀 손을 흔들며 여행객을 반긴다. 해발 123미터 봉우리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온다. 고려의 국운이 쇠할 대로 쇠하자 섬으로 쫓겨나온 왕족의 후예들이 개성 쪽을 바라보며 후일을 다짐했다고 해서 ‘국사봉(國思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산 정상에 서면 바다 건너에 또 다른 국사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무의도 국사봉이다.

산 중턱에는 통일사(統一寺)라는 작은 암자가 있다. 6·25 사변 당시 전사한 남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어느 미망인이 세웠다고 한다. 지금도 그 사찰에서는 남북통일기원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이하게도 대웅전 현판 옆에 빛바랜 태극기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다.

절을 내려와 바다 쪽으로 길을 잡으면 영흥도의 또 다른 바닷가 장경리가 나온다. 씹쌀한 해풍과 스멀거리듯 밀려오는 잔 파도 그리고 물새들의 간절한 울음만이 광활한 겨울바다를 채우고 있다. 한 쌍의 연인이 넉넉한 겨울

바다의 품에 한가롭게 돌을 던지며 물수제비를 뜬다. 장경리는 솔밭이 유명하다. 그 솔밭에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온다. 솔바람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길 잃은 고려인의 영혼은 지금 저 광활한 바다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 것일까. 무채색의 겨울바다에 회환과 후회를 던져버리고 그 섬을 빠져 나온다.

**가는 길** \_ 영흥도는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32km 떨어져 있다. 2001년 영흥대교가 개통돼 자동차로 갈 수 있다. 시화방조제-선재대교-영흥대교를 지나 4km 정도 달리면 십리포해수욕장이 나온다. **문의** \_ 영흥면사무소 (880-2607)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 십리포의 ‘바람막이’ 소사나무

영흥도 십리포 소사나무 숲은 국내 유일의 소사나무 군락지다. 웅진군 영흥면 내리 산91. 십리포 해수욕장 뒤 낮은 구릉 3,000여 평에 소사나무 350여 그루가 사열하듯 줄지어 서있다. 숲은 해안을 따라 400여m 길이로 띠를 이루고 있다. 가는 것은 허벅지 굵기 만하고 실한 것은 어른 몸통만하다.

130여 년 전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으로 조성했다고 하는 말만 전해질 뿐,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다. 100여 년 세월 동안 숲엔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한여름이라도 나무 밑에 앉으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 수증 자체가 울퉁불퉁한 모양이기도 하지만, 여느 소사나무보다 더 많이 휘고 뒤틀린 것은 십리포의 바람 탓일 게다.

소사나무는 서어나무의 일종이지만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 서어나무는 10~15m 높이로 자라지만, 소사나무는 10m를 넘지 않는다. 영흥도 소사나무의 평균 키는 8m 정도. 이제 다 자란 셈이다. 국내 유일의 소사나무 군락지의 가치가 인정돼 97년 천연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었다. 몇년전 보호철책이 쳐지면서 비로소 사람들의 손때로부터 해방되었다.



### 고독한 겨울 바다 4選



가 이일호씨의 작품들이 해신(海神)이 만든 갖가지 기암괴석들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는 길** \_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신도-장봉도로 가는 배를 탄다. 자동차도 함께 갈 수 있다. 신도에 내려 연도교를 이용해 시도를 거쳐 모도로 건너간다. 시도 수기해수욕장에는 드라마 〈풀하우스〉 세트장이 있다.



**가는 길** \_ 영종대교를 거쳐 공항 북측도로를 타고 가면 끝 쪽에 왕산해변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월미도에서 배를 탈 경우에는 공항 남측도로를 타고 마시란-용유-을왕해수욕장을 거쳐 다다를 수 있다.



리면 걸어서 영화 ‘실미도’의 촬영장소인 실미도로 건너갈 수 있다.

**가는 길** \_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로 건너가 공항 남측도로를 타고 잠진도 선착장에 가서 배로 건널 수 있다. 또한 연안부두에서 무의도행 여객선을 타도 된다.



**가는 길** \_ 초지대교를 이용해 전등사 방면으로 빠져 강화도 남단으로 향한다. 함허동전을 지나면 동막해변, 더 달리면 장화리가 나온다.

## 신이 만든 조각 & 사람이 만든 조각 모도

모도는 서해바다에 던져진 공기돌 같은 작은 섬이다. 그 섬에는 불과 20여 가구 밖에 살지 않는다. 겨울바람을 피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낮게 엮드려 있기 때문에 섬 전체가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조용하다. 모도의 길은 한길로 뚫려있다.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길을 따라 그대로 가면 종착역은 어김없이 ‘배미꾸미’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해변이다. 좁은 숲길을 통과하면 작은 조각공원 ‘이일호와 모도’를 만난다. 이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하는 애처로운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모든 조각은 별거송이다. ‘에로티시즘 조각’을 추구하는 조각

## 겨울 바다의 진수를 맛본다 왕산해변

용유도의 을왕리해수욕장은 일찌감치 국민휴양관광지로 개발된 탓에 계절에 관계없이 해변은 언제나 방문객의 발걸음이 넘쳐나고 생동감이 솟구친다. 을왕리해수욕장이 화려한 여름바다라면 을왕리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되는 왕산해변은 철지난 겨울바다의 이미지가 물씬 풍긴다. 드넓은 해변 앞으로 모래사장이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고 아래쪽으로 선녀바위 해변이 있어 모래사장과 갯바위가 잘 어우러진 광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좌우로 소나무 숲을 두른 바다 속으로 해가 떨어지는 모습은 용유 8경의 하나로 꼽힌다.

## 시네마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 무의도 바다

무의도 서쪽에 있는 하나개 해수욕장은 이제 ‘국민관광지’가 되었다. 겨울임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바닷가를 거닌다. 그 속에는 일본 관광객도 끼어있다. 드라마의 주인공 권상우가 일본에서 새롭게 뜨면서 무의도 바다는 그들의 겨울여행 필수코스가 되었다. 옆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실미해수욕장은 푸른 해송을 배경으로 깨끗한 백사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바다와 숲의 정취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

## 광활한 바다의 속살을 보자 강화 동막해변

동막해변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라는 강화남단의 갯벌을 끼고 있다. 그 바다는 하루에 두 번 시커먼 제 속살을 거침없이 보여준다.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바닷가에 서면 멀리 인천국제공항이 눈에 들어온다. 동막해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장화리가 나온다. 장화리의 노을은 강화 낙조의 으뜸이다. 붉은 노을로 물든 서해의 섬들과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그 파스칼에 마음속까지 빨갛게 물든다. 조단, 라레르, 해동자… 장화리 길가에는 운치있는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다.



# 뜨끈한 물로 ‘삶의 수은주’ 올려보자

살갓에 닿는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겹겹이 끼입은 옷에 움츠러든 몸과 마음이 둔하기 쉽지만 목은 때도 한꺼풀 벗겨내고 겨울철 건강관리도 할 겸 해수탕이나 온천욕은 어떨까. 바다를 끼고 있어 해수탕의 천국이나 다름없는 인천. 저렴한 비용으로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삶의 질 수은주를 한껏 올려보자.

## 해수탕의진수 해수피아

영종도에 자리 잡은 대규모 해수온천으로 800m 천연 암반에서 올라오는 청정해수를 사용해 수질이 뛰어나다. 온천수가 바닷물이라 처음 탕에 들어가면 따끔따끔 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한다. 폭포수를 쏟아내는 노천 계곡탕은 외국의 고급 리조트를 연상케 하는 규모와 분위기. 천연 황토와 소나무 껍질을 이용한 불한증막, 깊은 계곡 사이에 자리한 인진쑥탕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연세 지긋한 부모님을 동반한 가족단위 나들이객이나 어르신 관광단, 영종도나 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이 손님의 대부분.

이곳을 가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영종대교를 통과해 신불IC로 나온 후 첫번째 신호에서 U턴한다. 영종·용유 방면 표지판을 따라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해 나오는 해안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해수피아가 바로 보인다.



## 해수탕의종향관 연안부두 주변 해수탕 거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사람들의 주말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좋은 곳. 휴일마다 이곳 해수탕은 사람들로 붐빈다. 연안부두 일대의 해수탕은 연안의 바닷물을 직접 끌어들이지 않고 지하 200m까지 관정을 박아 끌어올린 깨끗한 바닷물을 40℃ 내외로 데워서 목욕물로 쓴다. 연안부두 일대에 해수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다.

각각의 해수탕마다 허브탕, 인삼탕, 다시마탕, 쑥탕, 솔잎탕, 커피탕, 옥돌사우나, 참숯사우나 등 특색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아 주말에는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온다. 고려스포빌은 골프연습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씨월드해수탕은 연안부두 근처 다른 해수사우나중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곳. 대형 해수 사우나에 노천탕도

갖추었다. 길이 21m 너비 4.3m 규모의 풀장이 있어 수영을 즐길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박하탕, 녹차탕, 허브탕, 냉탕, 참숯탕, 열탕 등 다양한 기능성 사우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연안부두 주변에 산재한 해수탕은 씨월드해수탕, 고려해수탕, 명진해수탕, 남해목욕탕, 서해목욕탕, 유림해수온천탕 등이며 기타 동남해수탕(남구 용현동), 영종해수온사우나(영종도), 하버뷰해수탕(월미도), 강화해수탕(강화 외포리)이 있다. 영업시간은 보통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지만 정확한 시간과 휴일은 업소마다 약간 다르고 입욕료도 3천원부터 5천원 내외로 나뉘기 때문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상 호                       | 전화번호     | 휴 무 일         | 상 호                        | 전화번호     | 휴 무 일         |
|---------------------------|----------|---------------|----------------------------|----------|---------------|
| 씨월드해수탕                    | 256-2008 | 둘째, 넷째 월요일 휴무 | 유림해수온천탕                    | 882-2161 | 셋째주 화요일 휴무    |
| 인스파월드(www.inspaworld.com) | 885-6776 | 연중무휴          | 동남해수탕                      | 882-4816 | 매주 목요일 휴무     |
| 고려스포빌                     | 881-8211 | 매주 화요일 휴무     | 해수피아(www.haesooopia.co.kr) | 886-4364 | 연중무휴          |
| 명진해수탕                     | 883-0758 | 매주 화요일 휴무     | 영종해수온사우나                   | 751-5050 | 첫째, 셋째 화요일 휴무 |
| 남해목욕탕                     | 884-0008 | 셋째주 화요일 휴무    | 하버뷰해수탕                     | 763-4111 | 매주 화요일 휴무     |
| 서해목욕탕                     | 883-3029 | 셋째주 화요일 휴무    | 강화해수탕(www.haesooopia.com)  | 932-2885 | 24시간 영업       |

## 잔물 목욕, 이래서 좋다!

해수사우나는 프랑스 의학자들이 2000년 전부터 내려온 지중해 바닷물을 이용한 질병 치료방식을 연구, 개발한 탈라소세라피(Thalasso Therapy 해수요법)를 이용한 건강 욕탕법이다. 우리나라 경우 <세종실록>에 실린 도자기가마 한증법을 계승한 전남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마을 일대에서 1800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간요법이다. 신체의 신진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 바로 미네랄인데 해수에 포함된 100여 가지의 미네랄은 인체 혈액 성분과 아주 비슷해서 헤모글로빈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당뇨, 관절통, 요통, 냉증, 피부병, 부인병, 무좀, 습진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태아 양육에 필요한 양수도 해수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 생명체를 키우는 지구혈액, 바닷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해수는 이온화된 거의 모든 화학원소들을 가지고 있어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광물질 부족으로 온 질병에 효과가 있다. 특히 다른 광천수와는 달리 마그네슘, 브롬, 요드, 이온 등이 많아 신경증, 자율신경성 균형장애, 심장혈관 계통 기능장애에 효과가 좋다.





예전 용창씨랜드가 있던 자리에 최근 새로운 워터파크 개념의 대규모 시설이 들어섰다. 제2경인고속도로 중점에서 연안부두 방향으로 직진하다보면 교차로 직전 우측에 인스파월드가 보인다. 이곳은 56m 물놀이 슬라이드와 수영장, 아쿠아시스템을 갖춘 전국 최대규모의 실내 워터파크로 천연해수탕과 참나무를 직접 때는 전통 재래 불가마를 비롯한 다양한 사우나 시설을 완비해 놓고 있다.

아울러 회원제 피트니스 클럽과 특급호텔 수준의 로비, 맛깔스런 식사메뉴와 함께 50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등 다양한 고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온 가족이 하루종일 행복하게’ 휴식과 재충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추천할만하다.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좋은 물은 마음까지 다스린다

## 유일한 지하수 온천, 마라손물칼슘탕

“몸의 때만이 아니라 삶의 고민, 인생 무게까지 녹여내는 물이 진정한 물입니다”

박용호(58) 사장은 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마음의 안정과 심지를 다져주는 물’이라고 소개하는 마라손물물은 지역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강화도 창후리 포구까지 멀다 알고 달려와 물맛을 보는 이들은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를 동반한 가족, 젊은이들 등 다양하다. 여느 온천과는 달라 사시사철 손님이 줄을 잇는데 번호표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불평이 없다.

본래 마라손물칼슘탕은 ‘달우물온천’이라는 이름으로 교동도에서 시작했다. 점자를 발명한 고 박두성 선생의 생가에서 박 사장에 의해 지난 89년 우연히 발견된 이후 10여년 영업을 해왔다. 마라손물을 먹고 자란 농작물은 튼튼하기도 하거니와 열매가 싹하였고 먹어본 사람이라면 잔병치레가 없었다. 마라손물은 주요 미네랄 성분과 천연 알카리성과 다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쓴맛이 나며 각종 피부질환 이외에도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특히 아토피에 강하다. 목욕후에도 1~2시간 동안 몸이 따뜻하고 땀이 배나온다. 이것이 포구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뱃편 이용과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손님 불편이 커지자 5년전부터는 창후리 포구로 자리를 옮겨 영업해오고 있다. 필요한 물은 20톤짜리 탱크로리로 매일 2~3회씩 퍼 나른다.

이곳에서는 세제나 화장품을 쓸 필요 없이 뜨끈한 마라손물에 몸을 담그었다가 나오면 그만이다. 일회용품이나 세제를 쓰지 않으니 환경오염도 없다. 가족탕 형태로 운영되며 욕조도 특이해서 4인정도가 둘러앉을 수 있는 4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 지하와 2층 모두해서 칸막이로 나뉜 30개의 욕실이 있다. 반신욕을 기본으로 하며 바닥에 내려앉으면 전신이 물에 잠긴다. 카운터에서 각 욕실마다 적당량의 물을 관으로 공급, 의자에 앉으면 가슴까지 찰 정도의 물을 넣어준다. 각각의 욕실은 바깥창이 나 있어 동반자와 함께 담소도 즐기면서 창밖 포구 풍경이며 바다, 산, 들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해질녘에 이곳을 찾으면 그런 낭만이 또 있을까 싶은 정도.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어 쾌적한 환경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박 사장은 “가장 훌륭한 온천은 세 가지 조건을 지녀야 한다”며 “기능수(효능)이어야 하고, 가족 또는 연인이 자연과 함께 사색하며 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하며, 방법적으로는 반신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욕시간은 보통 1시간~1시간 30분. 예약은 받지 않으며 아토피 환자나 장애인 가족의 경우 우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인 2인 1실 기준으로 입욕료가 1만5천원이다. 마라콩나물, 마라손물 순무, 마라티슈, 마라식빵 등의 상품도 구입 가능하다. 문의 \_ 933-4622



## 지역 우수제품 시민에게 ‘강추’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곳곳에 자리잡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 제품들과 첨단산업에 가려 이들의 노력과 성과가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역 경제특성상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인천. 우리시는 관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공산품, 공예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추천받아 이를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각 업체로부터 신청된 제품에 대해 산, 학, 연으로 구성된 품질심사위원단이 심의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품질 우수제품을 지정한다. 품질우수제품에 대한 정보와 우수성을 최종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품판매를 확대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2003년부터 실시된 품질우수제품 추천제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92개 상품이 선정되었고 1차로 그 가운데 30개사 30여개 제품이 홍보책자에 담겨 최근 시중에 소개되었다. 산업자원부 우수산업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주)대산코르크보의 기능성과 조형성을 갖춘 의자와 한성산업의 장식용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동식지울을 비롯한 일반 소비재에서부터 가정 전기제품의 시간조정에 사용하는 세광전자의 타이머스위치, 주식회사 자동기의 염화물살포기 및 제설기, 방부제와 색소를 넣지 않고 만든 푸른식품(주)의 쇠고기 명품다시, (주)세원리테크의 차선규제블럭 등 모양과 크기, 용도 면에서 다종다양한 제품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알려졌다.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우리시는 인천광역시품질우수제품지정서를 교부하고 품질우수제품 추천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상표 사용권한을 3년간 허용한다. 아울러 지정제품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해 관련기관 및 업체에 배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홍보책자를 비치하여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종합전시장에서 품질우수제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품질우수제품 지정은 매년 전반기, 하반기 두 차례씩 이뤄지며 지정에서 제외된 제품은 다음번 지정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 (440-2892)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주)대산코르크보의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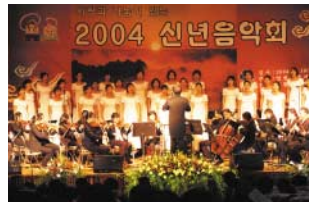


## 극 단 가 략 물고기 남자

이 작품은 인간의 관계와 존재에 관한 연극이다. <물고기 남자>의 무대는 남해 연안 양식장이다. 무더운 여름, 바닷물의 급속한 온도 상승으로 적조(赤潮)현상이 일어나 양식장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한다. 동업자 김진만과 이영복은 물고기 양식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말에 속아 양식장에 공동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 김진만은 그 망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이영복은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데...

**일시** \_ 1월 13일(목)~2월 1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토, 일, 공휴일) 4시, 7시  
(설날연휴 2월 8일, 9일, 10일 공연 없음)  
**장소** \_ 학산소극장 (남구 용현동)  
**티켓** \_ 일반 15,000원, 청소년 10,000원  
(회원-일반 10,000원, 청소년 7,000원)  
**문의 및 예매** \_ 남구학산문화원 (866-3993 /  
www.haksanculture.or.kr)

## 사 랑 과 나 눔 (2005 부평구 신년음악회)



부평구는 '오늘! 내일! 미래!'라는 주제로 새해맞이 사랑과 나눔의 무대를 마련한다. 아름다운 선율과 경쾌하고 밝은 음악으로 구민과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불우한 이웃 소외된 계층을 위해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음악회에는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한 소프라노 이유라를 비롯해 파페라 가수 마리아, 전자현악 4인조 벨라트릭스, 한울국악단의 가야금 연주, 클로에플룻앙상블의 플룻4중주,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그리고 영코랄 어린이합창단 등이 무대에 선다.

**일시** \_ 1월 21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_ 주안장로교회 본당 무대  
**티켓** \_ 초대 (무료입장) **문의** \_ 부평구 문화관광과 (509-6118)

## 연수구립 관악단 정기연주회

연수구의 지역문화로 자리 잡은 연수금요예술회. 벌써 91번째 맞는 이번 무대는 구립관악단의 제 13회 정기연주회 겸 신년 음악회로 열린다. 연수구립 관악단은 주폐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무대를 열고 '합창' 모음과 우리 귀에 익은 추억의 팝 주제곡을 들려준다. 테너 손영호, 소프라노 손강은이 특별 출연해 베르디의 춘희 중 '축배의 노래'를 부르며 알토색소폰 주자 이인권은 영화 주제곡 'Against all odds'를 들려준다.

**일시** \_ 1월 14일 오후 7시 30분 **장소** \_ 연수구청 대강당  
**티켓** \_ 초대 **문의** \_ 연수구 문화체육과 (810-7087)



## 전 통 춤 과 디 지 털 의 만 남 일무(佯舞)

인천향토춤사위연구회(이사장 이선주)는 한국의 춤 인천지역편 3집 '일무'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 인천지역편 1집 나나니춤(2000년)과 2집 칠성제석춤(2001)에 이어 이선주·김영숙 두 사람의 공저로 펴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원형으로 보존되고 있는 종묘일무와 문묘일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이 전자책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석전일무와 종묘일무의 세부적인 기초동작, 연결동작, 실황으로 구분하여 동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최초 전자책 형태의 출간이라는데도 의미가 있다.  
(문의 \_ lmm2004@nate.com)



## 뮤 지 켈 (팔도강산)



출가한 자식들을 찾아가는 유람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영화 <팔도강산>이 새로운 내용의 뮤지컬 <팔도강산>으로 돌아온다. 백일섭, 김상순, 여운계, 전원주 등 인기배우 및 귀순배우 김혜영과 실력파 뮤지컬배우들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팔도강산>을 만들었다. 뮤지컬 <팔도강산>은 칠순을 앞둔 노부부가 중심에 있다. 열렬한 행동과 실천으로 가족을 이해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만드는 노부부의 위대한 힘은 세대를 넘어선 소통과 이해 그리고 사랑의 결정이다.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나아가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일시** \_ 1월 29일(토) 오후 4시·7시, 30(일) 오후 3시·6시 (총 4회 공연)  
**장소** \_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 A석 35,000원  
**문의** \_ 창라이프 (1566-6551)

## 어 린 이 뮤 지 켈 (혹부리 소년과 도깨비 난타)

이 작품은 탈인형을 비롯해 막대인형, 그림자 인형이 한데 어우러진 총체캐릭터 뮤지컬이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일깨워주며 아기도깨비와 흑이를 통해 약속과 우정의 소홀함을 알게 해주는 뮤지컬이다. 옛날 배경과 캐릭터들의 따뜻한 정서와 고전 가락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도깨비들의 신명나는 난타 형식의 구성으로 어린 관객들의 흥미를 자아낼 것이다.



**일시** \_ 1월 15일, 16일 오후 2시, 4시 **장소** \_ 서구문화회관  
**티켓** \_ 10,000원 / 6,000원 / 5,000원 **문의** \_ 884-4231 / 016-330-7848

## T I E 프 로 그 램 (신춘비둘기)



남구 용현4동 성당에 새롭게 문을 연 '시민교육연극센터 소극장'의 개관기념 작품으로 서울교육극단이 출연하는 <신춘 비둘기>가 무대에 오른다. 이 연극은 교육연극방법인 TIE(Theater-In-Education)를 활용하여 관객을 참여시키면서 공연을 완성한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주도(酒徒)들이다. '술을 제대로 즐기려는 시민의 모임(술제즐시모)' 회원들이고 관객은 자연스럽게 이 모임의 회원과 가족으로 연극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은 이 모임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모이는데 공연장은 바로 그 행사장이 된다. 그리고 그 행사내용은 공연내용이 된다. 이 연극은 교육연극 전문가이자 인천시립극단 예술감독 겸 상임연출을 역임한 박은희씨가 연출한다.

**일시** \_ 1월 1일~8일 평일 저녁 7시 30분, 토·일 오후 4시  
**장소** \_ 시민교육연극센터 소극장(용현4동 성당)  
**티켓** \_ 무료 **문의** \_ 422-4409



## 윤도현밴드의 Made in YB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브 밴드, 윤도현밴드가 2005년의 시작을 인천에서 뜨겁게 달군다. 지난해 30개 지역, 54회 공연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16만 명의 관객을 공연장으로 이끈 윤도현밴드는 그동안 대중가수의 공연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소도시까지 찾아가 공연을 펼쳐 전국의 팬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 앨범에 작업 중인 미완성의 음악부터 새롭게 편곡되어 선보일 한국 Rock의 gala와 멤버 각각이 준비한 독자적인 퍼포먼스 '네 개의 작업실' 등을 펼쳐 보인다.

**일시** : 1월 22일(토) 오후 7시 30분,  
23일(일) 오후 6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문의** : 하늘기획 (322-2121)









# 도시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다



새해 우리시 시정전략의 화두는 ‘거버넌스’, ‘펜타포트’, ‘도시재생’, ‘자원봉사’, ‘사회자본’이다.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 건설’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세운 전략들이다. 경영전략의 범주에 있는 ‘거버넌스’ 전략은 시민의 자발성과 역량이 행정주체와 함께 어우러져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대응성이 높은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펜타포트’는 공항·항만·정보·비즈니스·레저분야에서 세계 일류의 중심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성장전략이다. 균형전략인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효과를 최대한 흡수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편 통합전략인 ‘자원봉사’ 전략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통합을 제고한다. ‘사회자본’은 강화전략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촉진시키는 규범, 신뢰, 질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이와 같은 5대 전략과 10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시의 새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15.7% 증가한 3조9천335억원이다. 이를 사회복지, 여성, 문화·관광기반, 환경분야에 중점 배분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시민의 권익과 건강이 보장되는 복지 실현

소득이 적고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잘살고 싶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홀로서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시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도 힘을 기울인다. 우선 아동복지에 있어서는 결식아동과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육 시설 기능보강 및 보육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어르신을 위한 배려도 눈에 띈다. 어르신들의 여가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범 중대형 경로당을 건립하고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을 신축한다. 저소득층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회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진료비를 확대한다. 이같은 사회복지분야에 우리시가 배분한 올해 예산은 4천347억원. 우리시 전체 예산의 11.1%에 해당한다.

## 깨끗하고 맑은 도시 조성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인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푸른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의 녹화사업과 공원 확충에 힘을 기울여 우리시의 녹지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차량에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해 자동차 공해를 줄이는 등 자동차 공해저감 대책을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굴포천·승기천 등 도심의 하천을 살리고 바다쓰레기 처리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 부담으로 쓰레기 수거 전용선을 운영한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기본이 되는 급수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남동 배수지 건설 등을 통해서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학익하수종말처리장,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같은 환경녹지분야에는 5천877억원을 배분했다.

## 희망의 교육, 감동의 문화도시 만들기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교육 및 문화·여가 분야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시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민사 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우리 인천에 산재한 문화재의 관리와 전통사찰 보수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계승에도 힘을 기울인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앞바다의 섬을 활용한 관광체험 팸 투어를 운영해 관광 진흥에 나선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에는 552억원이 편성됐다. 올 9월에는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실내체육관 건립 등 시민체육 공간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517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존 확대지정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육 여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 4천339억을 편성했다.

##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

주민제안에 의해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자교통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시설물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한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과 계양정거장 건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등 지하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는 2천387억원을 투자한다. 또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사업과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2천7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각종 대형 인프라의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돕는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산업 및 중소·벤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

## 지식정보산업 육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에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 및 R&D시설을 유치해 미래형 자동차부품 사업 혁신클러스터 구축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송도 테크노파크, 주안의 인천벤처촉진지구 및 정보산업진흥원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산업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제조업 등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552억원이 투자된다.

## 재래시장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업활동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자 보호 활동과 물가 안정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체험마을과 생태체험 등 어촌의 체험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할 것이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에서 급식을 할 때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방조제 개·보수와 경지정리 등 농수산 진흥분야에 642억원을 투자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경제자유구역 조성은 정부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송도지구는 국제업무단지 77만평 매립을 마치고 IT 클러스터 조성부지 5·7공구 198만평과 6·8공구 192만평 매립을 착공할 것이다. 또한 2·4공구의 도로·교량, 상수도, 공원 및 광장설치 공사를 준공한다. 여기에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3천497억원이 편성됐다. 영종지구는 영종지역 57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유·무의관광단지 1단계 지역 39만평과 운북관광레저단지 86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주변 기반시설 확충으로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과,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등에 476억원을 투자한다. 청라지구는 투자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레저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한다. 또한 올 7월의 인천항만공사 출범에 대비해 중앙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천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Port & Airport Sale을 연중 추진해 인천-중국간 컨테이너 항로개설에 대비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홍보로 배후 물류단지에 외국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류시정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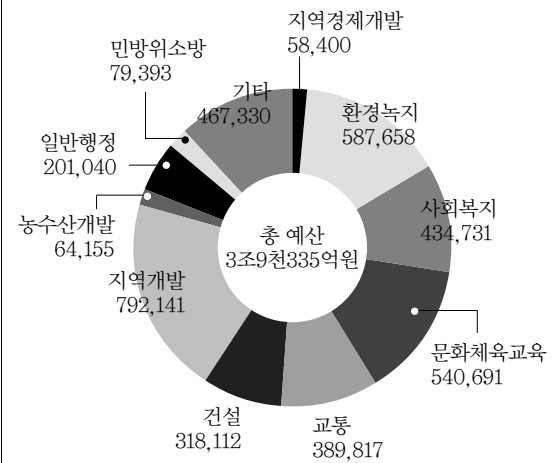
날로 심화되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시는 공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 정보화를 통해 시정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여론수렴의 채널을 다양화하며,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 위주의 열린 행정과 선진 일류시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 국제수준의 품질도시 건설

중심 시가지와 녹지주변에 대한 시가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의 경계 지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도시 경관과 미관을 아름답게 꾸민다. 특히 검단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를 흡수하고 전체 도시기능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구도심권 균형발전 사업을 향후 5~6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강화·옹진 도서 종합개발 및 서해 5도서 대책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과 접경지역 지원 등에 258억원을 투자해 오지·도서 등의 특수지역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국가균형 특별법에 의해 신활력지역으로 지정한 강화군, 옹진군의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 국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05 분야별 예산배분 (단위 : 백만원)



## 2004년 시정운영 성과

2004년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건설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을 도시의 비전으로 삼아 복지도시 실현, 문화도시 창조, 환경도시 지향, 지식도시 구현, 국제도시 건설이라는 5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

사회복지시설 9개소 등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착실히 확충하는 등 참여복지를 구현했다. 남녀평등의 날 운영과 평등부부상 시상 등 양성평등한 조화로운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시민경제생활 안정에 주력하여 소비자 물가상승을 3%대를 유지하는 한편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해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었다. 내집 주차장 갖기 등으로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선진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했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 공급에도 힘썼다.

### 문화도시 창조

지역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이밖에도 '인천예술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6·15 공동선언 4주년을 기념한 우리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인천이 남북화합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인천해양축제와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및 2004 인천하늘 축제는 이제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스포츠분야에서는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2004 국제여자철린저 테니스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국제스포츠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환경도시 지향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목표대비 150%의 사업성적을 올렸다. 도심에 7개의 공원을 새로 만드는 한편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과 수목원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을 확충했다. 맑고 쾌적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확대했고 대기오염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

는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하천수질개선사업과 바다쓰레기 수거사업,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습지보호 생태보전지역 지정관리 등은 살아 숨쉬는 하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었다.

### 지식도시 구현

변화와 혁신,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그 결과 6개 분야에 걸쳐 23개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 시민의 권익 향상과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료법률 상담과 자치법규 연혁 D/B를 구축한 것 또한 중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시민제안제도 운영과 시민의 소리 청취의 날을 운영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에는 전자입찰을 도입해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했다.

### 국제도시 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견인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국가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감대를 형성했다. 2008년 1단계 사업의 완성을 위해 주요개발 로드맵을 수립했고 외국인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306만평의 부지매립을 완료하고 77만평은 현재 매립중이다. 투자분위기를 선도할 핵심 개발사업으로 용유 무의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과 컨벤션센터를 착공하였고 U-City시스템 적용을 통한 첨단도시 기반마련을 위하여 U-City 정보화 추진전략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송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DEC) 구축을 위한 그랜드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는 등 총 207억불의 투자유치를 실현하기도 했다.



# 암환자 지원, 방과후교실 확대... 참 살기 좋아지겠네

## 일반행정 · 세제분야

### 공익신고(내부고발) 제도 시행

시 산하 공무원 중 업무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이용 부당이득 및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알선·청탁행위 등에 대해 공익신고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공무원에게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합니다. 이는 공무원 내부조직에 남아있는 구조적 비리를 차단해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시 감사관실 440-3130)



###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7월)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도 2004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2005년 7월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시 총무과 440-2415)

### 인감증명 발급 편리 (1월)

인감증명서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은 전자정부를 통해 개인 PC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감증명이 대리로 발급된 경우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 등이 개인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대리발급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6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 자치행정과 440-2433)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의 본인확인방법 확대 (4~5월)

지난해까지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하면 통·리장이 본인을 확인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할 경우 신청자 본인확인을 통·리장은 물론 동일 호적의 가족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 440-2433)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4~5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본인·세대원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호적내의 가족도 주민등록 분실신고할 수 있게 확대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 440-2433)

###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정리기관 확대 (4~5월)

지금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 440-2433)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확인방법 개선 (4~5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과 엄지지문 모두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 없이 엄지지문 확인만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4)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제공 (3월)

지난해까지는 현행 자치법규만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948년 이후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의 연혁자료를 포함한 각종 법령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 법무담당관실 440-2285)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7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부과되던 부동산 보유세제가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합니다. 1차로 군·구에서 낮은 세율의 '재산세'로 7월에는 건물분과 주택분(1/2),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1/2)으로 통합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주택 9억원 초과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시 세정과 440-2563)



## 환경 · 상수도분야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1월)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고,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해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반드시 물기를 짜고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지정된 봉투(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때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 청소행정과 440-3572)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확대시행 (1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타이어, 윤활유, 전지, 형광등, 컴퓨터 및 플라스틱 포장재 중 필름 포장재는 신제품을 구입할 때 구입처에서 의무적으로 무상 회수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를 구입할 때도 신제품 구입처에서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화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시 청소행정과 440-3573)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 (1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적게 나오는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시 환경보전과 440-3523)

### 공동주택 등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개선 (1월)

5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의 동의 없이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고, 신규 건축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업종이 같은 복합상가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고, 단일계량기만 설치된 50세대 미만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수도사업본부 870-9282)

### WHO 수준의 수질검사항목 확대 (1월)

먹는물 안정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인 법정 항목 55, 환경부 감시항목 15, 자체감시항목 51 등 총 121항목으로 확대, 강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870-9293)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경 (1월)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m³당 130원으로 변경돼 부과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870-9244)  
**상수도정보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실시 (1월)**  
상수도 단수안내, 검침정보, 요금정보, 민원처리결과 등을 전화 음성서비스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870-9311)

## 정보서비스분야

### 시민정보화 교육과정 개편 (1월)

인천 Cyber City Center에서 실시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이 더욱 다양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과정으로 개편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가족사진 내맘대로 편집하기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과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게임제작 및 IT 관련 사이버 교육 등 각종 흥미롭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1503)



### 시민참여형 인터넷신문 발간 (2월)

주요 시정 및 행사 소식, 생활유익정보를 이메일을 통하여 시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서비스합니다. 또 인터넷 타블로이드판(출판식) 전자신문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신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2)

###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1월)

최신의 지형도를 이용한 인천시 지도, 주요건물의 위치, 문화·관광시설물 안내, 버스노선도, 최단거리 등 시민들이 필요한 생활지리정보와 교통, 환경, 인구통계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학술, 연구용으로도 분석, 통계가 가능하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43~5)



### 시민편의 중심의 시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10월)

전자결재문서공개, 공공시설 이용안내 및 예약, 홈페이지 구축 등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2~4)



## 여성정책분야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아동 양육비 1인당 월 5만원, 중학생 학습비 1인당 분기 9만원, 난방 연료비 세대당 연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중·고생 교통비 1인당 월 2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군·구에서 추천된 500세대에게는 건강검진비가 세대당 10만원씩 지원됩니다. 또 장기 실직한 모·부자가정 300세대에게는 세대당 2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신규로 지원해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습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714)



### 저소득 아동 등 보육료 지원 확대 (1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1층), 차상위(2층), 차차상위(3층), 차차차상위(4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저소득층 보육료로 7,300명,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2,500명, 한 가정 두 자녀 보육료로 1,600명 등 총 11,400명의 아동에게 최고 월 29만9천원을 지원합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1월)

지난해까지 3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방과후 교실을 20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해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새로 방과후 교실이 설치되는 학교는 남부교육청 관내 송월, 만석, 용유, 도화, 서화, 송림초등학교, 북부교육청 관내 삼산, 마곡, 동수, 갈산, 진산, 부광초등학교, 동부교육청 관내 서창, 간석, 도림, 약산, 장수초등학교, 서부교육청 관내 부현, 효성, 작동, 효성남, 신현북초등학교, 강화교육청 관내 선원초등학교 등입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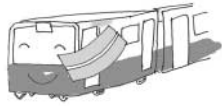
### 보육시설 CIRCUIT-MASTER 파견 사업 (1월)

올해부터는 모범보육시설 선정사업과 함께 보육시설 순회교육을 위한 고도의 보육전문가를 순회교사(circuit-master)로 위촉해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평가인증제 준비 사항을 장학(獎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모범보육시설 선정사업으로 30개소를 평가하고 순회교사를 100개소에 파견해 지원합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 교통·관광분야

###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확대 시행 (4월)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정기적 통근자에게 요금경감 혜택을 주기 위해 800~1,000원 구간은 월 35,200원으로 하고 1,100원 이상 구간은 15%를 할인한 단계별 거리비례제 요금을 부과합니다. (시 교통기획과 440-3874)



### 인천지하철 인천시내버스 양방향 환승할인 (4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지하철 ⇒ 인천시내버스간 단방향 환승할인(버스운임의 50% 할인)을 확대하여 인천지하철 ⇔ 인천시내버스간 양방향 환승할인으로 추진합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제반 준비사항이 완료되는 4월부터 인천지하철 ⇔ 인천시내버스간 양방향 환승할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교통기획과 440-3874)

###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 차등차로제 시행 (4월)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에 차등차로제를 시행합니다. 중앙공원길은 시청방향 3개 차로, 연수동 방향 1개 차로로 운영되며, 문화회관길은 시청방향 1개 차로, 연수동 방향 3개 차로로 운영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테라스형 버스정류장,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시 교통기획과 440-3864)

### 만월산 터널 개통 (7월)

2001년 12월부터 추진되어 온 만월산터널(남동구 간석4거리~부평구 동서정4거리) 축조공사가 금년 7월 29일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남동구 도심지역과 부평구 도심지역간 교통이 편리해지고, 물류체계 개선 및 시내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 도로과 440-3793)



### 인천시티투어 노선조정

인천시티투어 노선이 일부 조정되어 운행됩니다. 시내노선의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하루 3회 (11개 코스) 운행되고 동인천역, 화도진공원, 동막역은 코스에서 제외됩니다. 공항노선은 오전 9시 45분부터 1시간 30분 간격으로 13개 코스를 하루 6회 운행합니다. 공항노선에는 하얏트, 베스트웨스턴호텔, 을왕리해수욕장, 북충방조제(갑문) 코스가 추가됩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되는 테마코스는 소래노선은 폐지되고 강화노선만 운행됩니다. (시 관광진흥과 440-3325)

## 보건분야

### 금연클리닉센터 확대운영 (3월)

우리시 전 군·구(중구, 옹진군 제외)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누구나 보건소에 금연 신청을 하면 금연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6개월간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32)



### 소아암·백혈병 의료비지원 (1월)

지난해까지 만 15세 이하의 소아백혈병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 자녀의 소아백혈병 진료비 및 소아암 환자에게도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34)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월)

저소득층 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이 기존의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의료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및 입원기간중의 식대를 확대 지원합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34)



### 암 환자 치료비 지원 (1월)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대상자 중 위, 간, 대장, 유방, 자궁암이 발견되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의료급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층 폐암 환자에도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34)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 확대 (1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7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도 확대 지원합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62)

### 체지방분석 등 비만프로그램 운영 (1월)

우리시 전 군·구 보건소에서 체지방 분석기를 확충해 신체계측, 비만도 측정, 체성분(골격근, 지방, 수분량 등) 진단을 통한 성인병 유·무 판정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해 과학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75)



## 사회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금년보다 8.9% 인상돼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055,090원에서 1,136,332원으로 81,242원이 늘어나고 현금급여도 928,901원에서 972,256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촌 이내에서 1촌 이내로 완화됩니다. (시 사회복지과 440-2922)

###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1월)

올해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중증 장애인은 1인당 월 6만원,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입니다. 또한 월 3만원이던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월 4만원으로 인상돼 지원됩니다. (시 사회복지과 440-2663)



###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134가구의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파손된 벽지도배 등 주택을 개·보수해 드립니다. (시 사회복지과 440-2664)

### 노인 교통수당 지급 개선 (상반기)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수당 현실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 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매분기 5만4천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됩니다. (시 사회복지과 440-2674)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시행 (1월)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 시행됩니다. 우리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15,000㎡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0세~5세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사망) 손자녀·조카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농지소유면적 20,000㎡만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시 농정과 440-2963)







## ‘사랑의 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사랑의 식품 나눔은행’이라고 불리는 푸드뱅크사업이 내년부터 활성화된다.

우리시는 ‘2005년 푸드뱅크 운영계획’을

수립, 처음으로 푸드뱅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차량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푸드뱅크 기탁자 확대와 시민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리플렛·스티커를 제작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식품관련단체·집단급식소·시장번영회·두부공장·콩나물공장·반찬공장 등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연중 펼치기로 했다. 특히 수혜자 범위를 기존의 시설수용자와 재가복지대상자 외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모든 저소득 계층으로 확대기로 했다.

우리시는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며 자원봉사 신청접수를 위한 ‘푸드뱅크 1377’ 전화 11회선을 지속적으로 운영기로 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51

## 기초생활가구 가스안전시설 무료개선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무료 가스시설 점검과 시설개선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차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02년 379세대, 2003년 526세대, 2004년에는 466세대에 대한 배관시설, 휴즈콕, 빗차양막 등을 무료로 개선하였다. 우리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앞으로도 2006년까지 시 예산 6억원 및 가스안전공사 예산 2억8천만원을 무료개선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84

## 이메일로 지역정보 받아보세요

우리시에서는 시의 주요 시정소식 및 생활의 유익한 정보를 뉴스레터 ‘With인천’을 통해 주 5일(월~금)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다. 이곳저곳 해매지 않고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With 인천’을 이메일로 받는 방법은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 메인화면 좌측 중간 ‘이메일클럽 가입’에 E-mail 등록을 하면서 인터넷전자신문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된다. 회원인 경우는 시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회원정보변경에서 메일링 서비스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된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2

## 도로환경미화원 후원물품 전달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12월 10일 연말을 맞아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도로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키위해 방문한 나경일 목사(주안장로교회) 등 7명을 접견했다.

부평구 산곡동 소재 주안장로교회에서는 지난 90년부터 15년 동안 도로환경미화원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는데 올해에도 각 군·구 도로환경미화원 전원을 대상으로 방한복 1천벌을 시청 현관앞에서 김봉기 환경미화원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문의 \_ 시 청소행정과 440-3565

## 대규모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

남구 용현동 갯골수로 끝부분 매립이 추진되고 있는 남향 제3준설토 투기장 15만평에 수도권 최대규모 수산물 유통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우리시는 이곳에 총 사업비 2천억원(국비 70%, 시비 30%)을 들여 매립이 완료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해양공원 등을 갖춘 수산물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수산물 종합유통단지에는 수산물 도·소매시설과 저온저장고 및 냉동창고와 제빙 등 관련 지원시설과 해양수산공원 등이 들어선다.

문의 \_ 시 수산과 440-3210

## 다시 주목받는 실미도



여평을 종합영상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합영상단지에는 대형 스튜디오를 비롯해 특수촬영장·영상체험장·복합영상지원관·영화예술인이 집단거주하는 생활단지 등이 들어선다. 시는 영상단지가 완공되면 각종 영화촬영 관련 인허가 지원 등 영화 제작업무와 관련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실미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3243

북파공작원 훈련소, 영화 ‘실미도’ 등으로 유명한 실미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시는 철거된 실미도 영화 세트장 주변 7만

## 동절기 민생안정대책 수립

우리시 생활여건이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동절기 민생안정대책’을 수립, 현장 방문·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서민생활 보호지원 강화 동절기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 연말연시 민생현장 방문·점검 강화 등으로 나누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22

## 소비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

지난 12월 3일 개최된 ‘제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보호업무 유공에 대해 우리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2003년 4월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로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를 개소하고, 각종 소비자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리시의 소비자 행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결과이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798

## 의 정 소 식

### 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폐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승숙)는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132회 인천광역시 의회(제2차정례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조례 및 기타안건 20건을 처리하고 12월 14일 폐회하였다.

안전 세부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원안가결 9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수정가결 2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중개정조례안 등 부결 2건을 비롯, 보류 1건, 기타 6건을 각각 처리했다. 2005년도 예산의 경우 총 3조9천334억6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14억5천만원 각인 2조3천790억원,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1조5천544억원으로 결정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시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주문했고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시정연구관제 운영에 있어 전문성 확보와 근본적인 운영체계 제고를 지적했다.

한편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위원으로는 추연어·안병배·이강효·홍인식·이범성·황창배·강창규·김을태·임희정 의원 등 9명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추연어 의원이, 간사에는 이강효·임희정 의원을 선출하였다.



## 중구 신포시장 쉼터 조성

중구는 신포시장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신포동 3번지와 9번지 일대 756㎡ 공간에 개방형 다목적 쉼터를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사업비 9억3천여만원을 투입해 국공유지와 일부 사유건물을 사들여 올 11월 선별 예정이다.

쉼터에는 물고기 조형의자, 시계탑, 바닥분수 등이 설치되며 야간에는 빔 프로젝트를 쏘 이국적 정취를 연출, 지역 상인들 뿐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관내 재래시장을 월미관광특구에 걸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_ 중구청 760-7114

## 서구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분야 최우수상



서구 가좌2동이 인천시 13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해 센터를 투명하게 운영한 점이 인정됐다. 또 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실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등 더불어 사는 가좌2동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문의 \_ 서구청 562-5301

##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화



부평구 굴포천에 대한 생태하천화 사업이 '자연과 이야기 하면서 걷고싶은 하천'을 테마로 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리시는 부평구 갈산동 신한국아파트에서 부천시

상동 소사천에 이르는 13.95km의 굴포천 조성사업에 총 24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월부터 9월까지 1단계로 굴포하수처리장에서 부평구청앞까지 하천 유지용수 확보와, 하천 주변 정비사업에 나선다. 주 유지용수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풍납취수장 상수원수가 결정됐다. 2단계로 2006년 9월까지 부평구청부터 갈산펌프장까지, 3단계로 2007년 말까지는 갈산펌프장에서 소사천까지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각각 펼친다. 하천변에 산책로, 징검여울, 잔디광장, 자전거도로(부평구청 소사천) 등을 조성하고, 갈대·갯버들을 포함한 수생식물을 심어 자연학습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의 \_ 부평구청 527-5911

## 남동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내년에 남동구 간석동 606번지 일원에 간석동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선다.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역 인근인 간석4동 60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천393㎡ 규모의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계획이다.

국고 4억2천600만원, 시비 4억9천600만원, 구비 4억9천700만원 등 총 30억3천6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 복지관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이용시설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인근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설계중으로 3월에 착공이 들어가 9월 완공해 개관할 예정이다.

문의 \_ 남동구청 466-3811

## 계양구 계양산성 2차 발굴조사



계양구는 지난해 계양산성 1차 발굴조사에 이어 오는 3월까지 2차 발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지정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계양산성에 대해 지난 1차 발굴조사 결과 기와편 1.5t, 철기류 53점 등 산성의 축조 시기와 성곽의 축조방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 등이 발견됐다. 특히 삼국시대 유적인 계양산성은 조선중기에 이미 문헌에 기록될 만큼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동문지 및 북문지에 해당하는 임학동 산12번지와 방축동 산50-5번지, 산51번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문의 \_ 계양구청 551-5701

## 강화군 우수행정기관 선정

강화군이 2004년도 인천광역시 군·구 민원 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화군 특수시책 우수사례중에는 민원행정의 내실을 위한 노력으로 군사보호구역내허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제 운영, 도서지역의 주민을 위한 이동군청의 효율적인 추진, 민원실내 전직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행정상담제도 등이 우수시책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군은 민원사무의 간소화추진, 1회방문상담창구운영, 실무종합심의화운영,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민원의 부당한 접수거부 사례 및 부당한 자연사례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 결과 나타났다.

문의 \_ 강화구청 934-2183

## 외국 명문 사학재단 국제학교 설립 '노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영국과 미국 등 외국 명문 사학재단의 학교 설립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송도 등 인천 경제특구에 국제학교 설립 의사를 직접 밝히거나, 우리시에 제안서를 보낸 외국 학교 사립재단은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6개교에 달한다. 호주의 비영리 학교재단인 인터내셔널 그램머 스쿨(International Grammar School)은 지난 12월초 우리시를 방문, 경제특구인 영종도에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학교는 60학급 정원 1,200명 규모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서는 영국의 유명 사학재단인 MPW(Mander Portman Woodward) 관계자들이 시를 직접 찾아와 송도특구 인근 연수구 옥련동 대우자판(주) 소유 매립지에 외국어마을과 국제대학원을 세우고 싶다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영국의 교육전문그룹인 노드 앵글리아(Nord Anglia Education PLC)와 영종도에 약 235억원을 투자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송도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미국 게일사와 미국 동부지역 6개 명문 사립학교 컨소시엄은 공동출자로 2008년까지 송도특구에 학생 2,000명 규모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다. 대교 국제고(360명)도 영종도에 2006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영국 학교재단(MPW)의 니겔 슈타우트(Dr.Nigel Stout)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성공적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주최로 지난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시급, 원스톱서비스 정착, 국비지원의 조기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계양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는데 우선 위기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차세대 발전 전략이라는 공감대가 부족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각종 개발절차 및 인허가의 규제완화 미흡 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의료법 및 공공의료제도의 보완 개선, 수도권정비법 적용문제 등을 시급히 정리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 경제자유구역 건축규제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건축행위시 용도지역별로 평균용적률이 적용돼 주변 여건에 맞춰 건축행위가 탄력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의 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촉진과 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축행위 규제 완화의 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인천시 공동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지역에는 용도지역별로 평균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 개별 건축물별로 350%이하까지 용적률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을 모두 합해 평균 용적률이 350%를 넘지 않으면 모든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개발을 우려, 인접지역의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의 배치와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적정 층수와 밀도, 건물형태 등에 대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 놀까? 공부할까? 배울까?

잔뜩 움츠러들기 쉬운 때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뭔가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시에 있는 각 문화원을 비롯해 청소년시설, 단체에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놓았다.

특히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 구의 문화원을 이용하면 알찬 방학을 보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우리시에는 강화·부평·서구·연수·종구·학산문화원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연수문화원과 학산문화원에서 방학 특강을 마련했다. 각 문화원의 방학 특강은 지역주민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이라 내실있다.

## 다양하게 배우고 즐기자 | 부평문화사랑방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놀이가 있는 마임 - 마임 워크샵’은 신체표현을 통한 상상력 자극과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마임을 직접 배우고 표현하는 시간이다. 또한 ‘문화콘텐츠 앰배서더(홍보대사) 청소년 문화강연’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문화콘텐츠산업의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분야의 전문가가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을 찾아가는 탐방강연 프로그램이다. 영화배우 안성기씨를 초청해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크린 위의 콘서트’는 오페라·뮤지컬·공연실황 등 수준 높은,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관람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상영해 청소년들의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준다.

이밖에도 ‘겨울방학 특별초청 공연’으로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 ■부평문화사랑방 겨울방학 특별기획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일시                           | 출연강사 | 관람료(수강료)            | 주요대상   |
|---------------------|------------------------------|------|---------------------|--------|
| 놀이가 있는 마임 - 마임 워크샵  | 1. 4~2. 1<br>(매주 화요일 1시 30분) | 김원범  | 10,000원<br>(선착순 마감) | 초등학생   |
| 문화콘텐츠 앰배서더 청소년 문화강연 | 1. 28(금)<br>(오후 3시부터)        | 안성기  | 무료                  | 중·고등학생 |
| 스크린 위의 콘서트          | 1. 20~<br>(목요일 오후 2시부터)      |      | 무료                  | 초·중·고  |
| 겨울방학 특별 초청 공연       | 2월초 예정                       | 섭외중  | 미정                  |        |

문의 \_ 부평문화사랑방 505-5995



## 오페라 감상하기 | 연수문화원

연수문화원은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유아에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강좌가 열리는 문화학교는 연수문화원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올 겨울방학에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동화와 함께하는 요리만들기, 도예교실,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음악이론, 오페라 산책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특강을 마련해 놓았다. 특히 온가족이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오페라 산책’은 눈에 띈다. 어린이들이 평상시에 쉽게 접하기 힘든 오페라를 성악가가 직접 무대의상을 입고 영상과 함께 주요 장면에 대해 해설해 준다. 올 겨울방학에는 1월 21일 롯데시네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감상한다. 특히 김자경 오페라단에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 교육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클레이애니메이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무대에 올려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여준다.

‘문화기행 연수구 다시보기’는 우리 지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역사탐방 프로그램이다. 1월 28일과 28일 두 차례 열리는 문화기행은 연수구청을 지나 송도신도시홍보관, 능허대, 동막어촌계, 청학동 외국인묘지, 동곡재를 두루 돌아보는 코스로 진행된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따로 없다.

‘미추홀생태학교’는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속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겨울방학 생태학교는 철새탐조를 위해 1월 21일에는 강화도, 28일에는 임진각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_ 연수문화원 (821-6229, 821-6239, www.yeonsu.or.kr)

## 옛 것을 배우 새것을 익히자 | 가천인력개발원

길병원 부설 가천인력개발원에서는 전통 서당 동계체험 캠프를 연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체험할 수 있는 한문 및 예절학교다. 전통 문화학습을 통해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유교 학문과 전통 예절교육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성균관 학자를 강사로 초빙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서당교육을 도입한 것이라 도심에서 우리 옛것의 향취를 맘껏 느껴볼 수 있다. 교육은 4박 5일,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등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한자 및 한문교육, 전통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교육 등 인성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양에 맞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참가비는 프로그램 진행 일수에 따라 각각 17만원, 14만원, 9만원, 6만원으로 다양하다.

문의 \_ 가천인력개발원 (833-0357, www.ghrd.co.kr)







학산문화원은 인천의 문화원중 가장 막내이지만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문화원보다 한발 앞선 프로그램으로 돋보이는 곳이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교실이 눈에 띈다.

‘놀이가 있는 마음’은 마음이스트 김원범씨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음의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3개월간 강의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에로도 돼보고, 저글링 연습도 해본다. 강좌는 1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수강료는 한달에 만원. 문의 \_ 학산문화원 (866-3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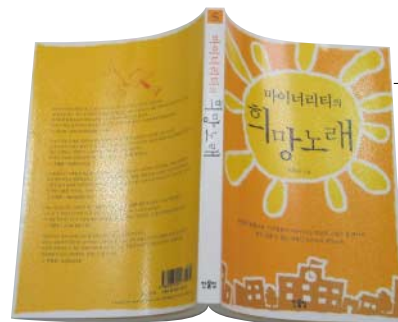
화수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캠프를 마련했다. 마술캠프, 챌린지캠프, 디카캠프가 그것이다. 각 캠프마다 고유의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이번 캠프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마술캠프는 ‘신비한 나’, 챌린지캠프는 ‘건강한 나’, 디카캠프는 ‘예술적인 나’를 주제로 각각 마련되고 모든 캠프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문의 \_ 화수청소년문화의집 (762-7942)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행사 현황

| 단체명               | 프로그램명                              | 주요내용   | 참가대상                                      | 기 간                                | 참 가 비                   | 연 락 처    |
|-------------------|------------------------------------|--|---|------------------------------------|-------------------------|----------|
| 시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 취미교양교육<br>겨울방학특강               | 전통, 음악, 미술, 과학 등<br>8개분야 29개 강좌 교육           | 인천시 관내 거주 청소년<br>(559명)                   | 1.4 ~29                            | 무료<br>(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 | 465-6827 |
| 청소년회관             | 청소년 취미교양교육 및<br>우리열악하기 문화학교 겨울방학특강 | 미술, 기악, 과학, 문화학교 등<br>11개분야 24개 강좌교육         | 인천시 관내 거주 청소년<br>(479명)                   | 1. 5 ~2. 1                         | 무료<br>(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 | 887-5270 |
| 동구 청소년수련관         | 제6회 한울터 연합방송제                      | 영상을 직접 제작, 발표회 관람                            | 인천지역 고등학교 방송반 학생,<br>지역 주민 (약 100명)       | 1. 30                              | 무료                      | 777-7944 |
|                   | 평생교육 겨울방학 특강                       | 수학가베, 발표력향상, 미술교실, 글쓰기                       | 동구지역 청소년 및 아동<br>(약 60명)                  | 1월~2월 (세부일정 미정)                    | 미정                      |          |
| 동구 화수<br>청소년문화의집  | 테마가 있는 영화<br>청소년 특성화 캠프            | 영화상영<br>미술·챌린지·디카캠프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약 30명)<br>초등4~중/고 (각 캠프 10명) | 1. 2~23 (매주 화~금)<br>1.13~15 (2박3일) | 무료<br>129,000~139,000원  | 762-7942 |
|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 자기이해교실                             | 성격검사를 통한 자기이해와 대인관계 증진                       | 중, 고생 (각 30명)                             | 1.17, 24, 31                       | 1만원                     | 545-4179 |
|                   | 발표력 향상교실                           | 자기표현력 습득, 인간관계 및 리더십 향상                      | 초등학생 (20명)                                | 1. 4~2.22 (매주 화요일)                 | 2만원                     |          |
|                   | 글쓰기 논술교실                           | 논리적 사고력 향상                                   | 초등학생 (20명)                                | 1. 6~ 2.24 (매주 목요일)                | 2만원                     |          |
|                   | 자원봉사 체험학교                          | 자원봉사교육, 시설방문                                 | 중, 고생 (각 30명)                             | 1.2~3 / 1.18~20 / 1.25~27          | 5천원                     |          |
|                   | 패저싸이즈교실                            | 패즈 및 댄스 운동                                   | 초, 중생 (25명)                               | 1. 4 ~2.24 (매주 화, 목)               | 3만원                     |          |
|                   | 주산교실                               | 주산교실   | 초, 중생 (20명)                               | 1.3~2. 21 (매주 월, 수)                | 3만원                     |          |
|                   | 다도교실                               | 전통차 마시는 법 이론과 실습                             | 초, 중생 (20명)                               | 1. 3~2. 21 (매주 월)                  | 2만원                     |          |
|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 문화교실                               | 창작미술교실(방학과제 활용)                              | 초등생 (20명)                                 | 1. 7~2. 25                         | 2만원                     | 561-5566 |
|                   | 문화교실                               | 서예, 영어교실                                     | 서예 : 초등학생<br>영어 : 초1~3 (각 20명)            | 1월 중                               | 무료                      |          |
| 서구 가정동<br>청소년문화의집 | 겨울문화학교                             | 힙합, 재즈댄스                                     | 초등학생 : 100명<br>중학생 : 30명                  | 1월 중                               | 1만원                     | 560-4562 |
| 강화군<br>청소년수련관     | 방학특강                               | 종이접기, 독서지도, 글짓기, 매직풍선,<br>생활일어, Hi English 등 | 관내 청소년 (260명)                             | 1. 4~2. 26                         | 무료<br>(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 | 930-3636 |
|                   | 일요일 무료영화 상영                        | 청소년 건전영화 상영                                  | 관내 청소년 및 가족 (180명)                        | 1. 2~2. 28 (일요일)                   | 무료                      |          |
|                   | 방학기간 무료영화 상영                       | 청소년 건전영화 상영                                  | 관내 청소년 및 가족 (180명)                        | 2.1~28 (매주 화, 목, 일)                | 무료                      |          |

※위 행사는 주관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희망의 그날이 올 때까지

마이너리티의 희망노래 정창교 지음 (한울림 권 224쪽 9500원)

자폐성향의 발달장애아동들에게 의사소통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회원이는 암기력만큼은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자질이 아들이 통합교육을 받으며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인 것 같다. (저자의 글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거리는 불과 한 뼘 정도를 사이에 둔 머리와 가슴간의 거리라고 했던가? 세상을 살다보면 머리와 가슴이 엇갈리는 일이 종종 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남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자신의 문제가 된다면 고개를 가로젓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장애아동들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교육 문제도 그 극명한 예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 부모의 경우, 다수가 통합교육이 더 좋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편견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학교 보내기를 포기한 채 9~10세까지 특수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두고 있다. 또 형제가 있는 경우 놀림감이 될 것을 걱정해서 같은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엄마들도 있다.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는 장애인인 왜 특수학교를 두고 일반학교를 다니느냐고, 그만두기를 권유하기도 한다.

이 책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사회의 한 일원인 장애아들에게 있어서 교육받을 권리, 그것도 통합교육은 당연한 권리이며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축복받고 존중받아 마땅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시 지방자치단체 사상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보조원 제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책의 지은이 정창교는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부모와 일반아동,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교사들이 통합교육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통합교육 사례를 들어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다. 지은이 역시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발달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로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슴을 열고 이 책을 펴면 같이 공감하고 때론 눈물도 흘리면서 장애인 가족들의 고단한 삶에 희망을 빛을 지퍼주는 주인공이 된다.

##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해물사랑의 해물찜

해물사랑에서 내놓는 해물찜의 노하우는 바로 '양념숙성'이라는 다소 생소한 과정에 있다.

고춧가루를 비롯해 마늘, 전분 등 20여 가지의 양념을 모두 조합해서 찜게는 나흘, 길게는 일주일까지 숙성을 시켜 해물과 함께 요리한다.

그때 그때 양념을 넣어 조리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진한 맛이 우러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막상 해물찜을 시켜놓고 먹으면 그 안에 담긴 재료의 다채로움에 입이 벌어진다. 낙지와 꽃게를 비롯해 문어, 키조개, 오징어, 소라 등 무려 20여 가지의 해물을 맛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콩나물, 미나리, 대파, 양파 등이 충분히 버무려져 있어 웬만한 대식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곤약과 떡볶이는 맵다 싶을 때 한 점 씩 베어먹으면 입속의 매운 기운을 가시게 해준다.

📍 해물찜 45,000원(대) 35,000원(중)

📍 계양구 계산동 1081-10 명동프라자 203호

☎ 547-9883

💰 80석

🅑 20대





# 승학산 기슭에 울리는 공자님 왈...



“어 제까지 3일간 교육을 받고 와서 허둥대며 왔네요. 아침밥도 못 먹이고 애들 겉옷 입은 것 좀 보세요. 오늘 추워서 어찌죠?” 비누냄새가 찬 공기와 만나 묘한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이영주(35)씨는 아들(박정훈·만수초 1년)과 아들이 친형처럼 따르는 최도영(같은 학교 5학년)군을 데리고 왔다. 도호부청사 앞마당에 있는 전래놀이기구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은 굴렁쇠, 제기차기, 비석치기, 줄다리기, 팽이, 딱지, 널뛰기 등에 헉헉거리며 호기심을 여지없이 분출했다. “엄마! 이것도 공부죠?” “그래, 애들아, 큰 공부하러 가자.” 추정호(60) 문화유산 해설사는 승학산을 깨웠다.

## 마음이 지나는 문

문학경기장 건너편에 인천향교가 있다. 향교는 지방 공립학교로서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과 유학을 강의하는 명륜당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시대 때의 관청인 인천도호부청사와 학교인 향교가 문학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 이곳이 인천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관교동(官校洞)이다.

향교 입구에는 조선시대 인천에서 근무했던 부사들의 선정비가 줄지어 서 있고 그 밑에 있는 작은 비석 하나가 눈에 띈다. 해설사는 일행을 반원으로 모이게 했다. “우선, 향교의 배치부터 알아야 합니다. 향교가 설치된 곳에는 홍살문이 맨 먼저 서있고 그 옆엔 하마비(下馬碑)가 꼭 서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궁가·문묘 등의 앞에 세워놓은 표석으로, 사대 성인 중 한사람인 공자를 뵈러 가는데 말을 타고 들어 갈 순 없지요. 임금님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향교를 출입하는 이는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글을 적은 비석입니다.”

도영이는 하마비의 설명을 듣고 순간적으로 생각에 잠긴 듯하다. “학교 앞에서도 예를 갖췄다니...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 섬김과는 다르게 우리 학교에선 고개만 끄떡, 그것도 걸어가면서 말로만 인사하는 애들이 많아요.”

하마비를 지나면 높다랗게 뻗은 홍살문이 나온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홍살문은 담장과 문짝이 없어 길 위에 외롭게 서 있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세운 문이 아니라 홍살문이 있는 곳에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일종의 경계선이다.

정훈이는 홍살문이 서 있는 이유를 미리 공부하고 온 듯하다. “가로대 화살 모양의 위는 신이 다니는 신도(神道)이고, 아래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人道)예요. 홍살문은 몸이 아닌 마음이 지나는 문이래요.”



1 공자님을 알현하자~ 2 공자님의 가르침, 잘 적자. 3 공자님 말씀이 재밌네요.



공자, 증자, 안자, 맹자, 자사...성인들 모두 계시네

홍살문을 지나 오르면 전형적인 조선시대 학교 건물이 늘어서 있다. 언제 향교를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세조 때에 다시 건축되었다고 한다. 일직선으로 약 50m 가량 올라가면 외삼문이 좌우의 담장을 두르고 서 있다. 그 문을 들어서면 막돌로 쌓은 높이 약 6m의 축대가 서있고 중앙으로는 계단이 나 있다. 계단을 오르면 좌측으로 는 명륜당이 있고 대문에 들어서서 뒤를 돌아보면 마을 전체의 모습이 한 눈에 펼쳐진다.

화단에 단추모양 소국들과 겨울장미가 빼죽 아랫마을을 향해 향기를 쏟고 있다. 전선주 위 새떼들이 재잘대는 모습, 차량이 실 새 없이 지나는 모습이 다 내려다보인다. 현장학습 나온 학생들의 교복차림이나, 도로를 질주 하는 자동차 경적이 웬지 안 어울린다. 역사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현실감각을 잃어버린다.

명륜당은 향교의 본래 기능인 공자의 사상을 받들어 유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곳이다. 윤리를 밝게 하고 도덕을 펴는 장소이며 사람 사는 도리는 인(仁)을 근본으로 삼았다. 조선 초기에는 12세가 되면 향교 입학자격 이 주어졌고 조선중기 이후에는 15세 넘어서 40세 까지 교생(공부하러 온 생도)이 될 수 있었다. 향교에는 유생 들이 학문을 배우는 공간으로서 강학장소인 명륜당이 맨 앞에 배치되고, 그 좌우로 지금 기숙사와 같이 유생들 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동재(양반자제)와 서재(평민자제)가 마주하고 있다.

명륜당 뒤에는 대성전이 있는데 좌우로 동무와 서무가 마주하고 있다. 동·서무는 제사에 필요한 제기들을 보 관하는 건물이다. 대성전의 단청은 ‘붉을 단(丹)’ 과 ‘푸를 청(靑)’ 을 결합한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자세히 보면 숨 이 막힐 정도로 단정하다. 단청장이는 목욕재개 후 정신을 바짝 모으고 자신의 감정을 배제했다. 자연의 원리인 오행설과 관계된 단청의 기본색은 청·적·황·백·흑 이다.

사람 사는 도리 ... 仁

대성전은 공자의 위패를 비롯해 중국의 4대 성인 (증자, 안자, 맹자, 자사)과 우리나라 유학의 18명의 위인 (설 충, 최치원, 안유,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현, 김집, 송시 열, 송준길, 박세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4 유생들이 학문을 닦았던 강학 공간인 명륜당 5 향교안에 거주하는 장의에게 설명을 듣는 일행 6 애들아, 사람사는 도리는 仁(인)을 근본으로 한단다.



※이 코너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둘러보고 싶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정해서 전화(440-2072) 또는 이메일 (happyjka@incheon.go.kr)로 신청하세요. 참가하는 분께는 문화상품권(1만원권) 2매를 드립니다.

어명이오...교육기회를 넓히시오

우리고장에는 인천향교를 비롯해 부평·강화·교동향교 등 4개의 향교가 있다. 부평향교는 1127년(고려 인종 5)에 '주(州)마다 학교를 세워 교육기회를 넓히라(諸州立學廣敎)' 는 왕명에 따라 계양산 남쪽 기슭인 계양구 오류동 산4번지에 세워졌다. 1165년 (의종 19)에 안남도호부가 계산동(온수골)으로 이전함에 따라 향교도 그 부근으로 옮긴 것 으로 추측된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지역의 인재들을 길러 낸 부평향교는 병자호 란(1636)의 난리통에 문묘건물이 완전히 타버렸다. 1688년(숙종 14)에 현재의 위치로 이 전하고 호란 당시 공촌동에 피신시켰던 열성위판(烈聖位版)을 다시 옮겨와 개교했다. 강화향교는 인종 5년(1127)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세워졌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명륜 당·내외 삼문이 있고, 동·서문은 터만 남아 있다. 맞배지붕의 대성전에는 중국의 5성과 송조 6현, 한국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교동도에 있는 교동향교는 우리나라 향교 가운데 가장 먼저 공자상을 중국으로부터 가져다 봉안한 유서 깊은 향교다. 고려 충렬왕 때인 1286년 유학자 문성공 안유(안향)는 원나라에 갔다오는 길에 이곳에 닳을 내려 공자의 화상을 향교에 모셨다.



강화향교



# 게임산업의 지존을 꿈꾼다

학습능력 지닌 게임 개발 주력

누가 게임산업의 지존을 논하는가?

차세대 게임 산업의 리더를 자처하는 5인조 특공대가 '아라게이트' (대표 박선준, 남구 도화1동 592-5 대림빌딩 1504호)를 지키고 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패기만만한 이들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즐거운 게임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개척자로 기꺼이 나설 각오다.

아라게이트는 지난 2000년 10월 회사가 창립된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컨텐츠를 게임 방식으로 구성, 재미와 흥미를 동시에 갖춘 에듀 게임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왔다. 조립용 놀이기구인 과학상자놀이를 본따 만든 '과학상자'와 전자기판을 온라인상에 구현, 조립과 함께 물리에 대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배어들게 한 '아라키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밖에 아동용 PC게임인 '우주용사 배가맨', '고스트하우스' 등도 상품화했다.

우주용사 배가맨은 2002년 인천시 우수소프트웨어 은상에 선정되었고 고스트하우스는 중소기업 산학연 선정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업체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창의적인 캐릭터 개발과 다른 차원의 시나리오 구성, 학습능력을 갖춘 프로그램 원천기술 개발 등에서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기술개발과 게이머들의 욕구 변화에 맞춰 사람 대 컴퓨터로 대표되는 기계간의 단순반응과 조작이 아니라 사람의 학습능력과 같은 기능을 부여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동적이고 진화해 나가는 게임을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게이머의 상대 캐릭터에 학습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부여, 게이머의 공격과 방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다음 상황에서는 피드백된 자료에 의해 새로운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게이머는 늘 새로운 상황을 가정하고 전략을 개발해야하는 즐거운 고민에 빠지고 만다. 올 5월경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그간의 성과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우수 신기술지정 사업으로 1억2천여만원의 개발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인증도 받아냈다.



게임원천기술개발에 강한 의욕을 지닌 아라게이트 박선준 대표

이처럼 자체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에 몰두하면서도 외부와의 협력에도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시립인천대를 비롯해 인하대, 재능대, 경인여대 등과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게임 전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해법찾기에 공동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25개 정도의 컴퓨터 게임관련 업체가 운영되지만 그중 5개 정도가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수준도 낮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의뢰로 '인천 게임영상 특성화 전략 연구' 보고서를 작성중인 박선준 대표(33)는 이참에 그간의 고민과 해법을 담아낼 요량이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산하 모바일 콘텐츠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대표는 "업계는 우선적으로 이동통신에 많이 적용되는 실감형 3D모바일 영상과 게임원천기술 개발이라는 두 가지 핵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 개설, 전문교육기관격인 교육센터 등의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업계 스스로의 활로모색을 위해 "앞으로 공동연구와 개발, 상품화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게임영상 업계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의 \_ 213-1830~1 www.aragate.com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추 원천 기술을 위해

게임 엔진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전산, 물리, 수치해석 등 다수의 학문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정보화 사회 실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기술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게임 엔진 기술은 세계기술에 비해 아직 미흡한 편이지만 온라인 게임 분야는 세계 1위를 인정받는 만큼 머지 않아 게임 엔진 기술력도 선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라게이트는 이러한 전망속에 '아라게이트 게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3D 게임의 개발을 위한 각종 엔진을 개발하는 이곳은 게임의 원천 기술 개발에 부단한 열정을 쏟아붓는 아라게이트의 노력과 일맥상통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좀 더 사실적이고 현실에 가까운 게임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게임을 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게임기술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 100°C 까지 쭉쭉~ 올라라



‘사랑의 체감 온도계’는 이웃사랑에 대한 바로미터이다. 이 온도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웃돕기 성금의 총액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연말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 설치했다. 그늘진 이웃들을 위한 모금이 쌓일수록 온도계의 눈금이 조금씩 올라간다. 우리시의 모금 목표액은 13억9천500만원. 이 목표액을 채우면 수은주가 100도에 다다른다. 경기 체감 온도가 얼어붙었지만 사랑의 빨간 수은주가 ‘쭉쭉~’ 끝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사진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우리시가 최근들어 정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인천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항만, 탄탄한 제조업 기반 등을 갖춘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느냐의 여부에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호부터 국내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의 기고를 통해 물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고 인천 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다. <편집자>

##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 인천의 과제



글 \_ 전일수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장)

인천은 부산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교역도시가 되었다. 더불어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인천의 경우 물류산업이 지역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1세기에도 한국이 과거와 같은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흡수효과가 가장 높은 핵심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 발전시켜야 한다. 인천을 동북아의 비즈니스 및 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국가전략이어야 한다.

문제는 전략실현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 엉성하고 느슨하다.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하여 이미 위기적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얼마전 필자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물류기업, 국내물류기업, 중국의 물류기업 등 288개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동북아물류허브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결과는 지금의 정부정책으로는 허브화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획기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도시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루빨리 인천지역에 물류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 물류인력 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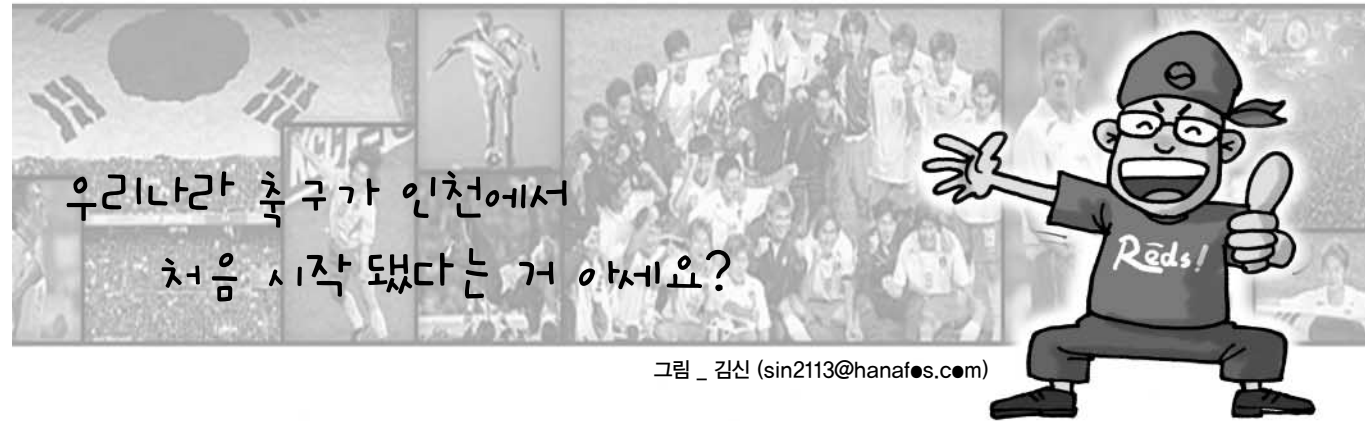
오늘날 공항은 물류기업 및 공항 지향적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화물공항기능과 배후산업지역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은 세계 도처의 경험으로써 입증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물류기지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배후단지의 개발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계획의 시작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기업들과 국제물류기업들은 그들의 물류수요를 100%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을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송도신항의 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물류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부문의 전문·기능 인력의 양성이다. 인력 양성기관의 위치는 수요처와 근접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국제물류업무가 밀집된 인천이 최대 수요처가 될 것이다. 지역의 국제화를 위한 전문·기능 인력의 양성이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의해 규제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한편 인천시도 지역내 대학들의 물류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인천의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추진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제까지 인천은 중앙정부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없었다. 시민들의 의지와 경각심이 필수적이다.







신종 상거래와 특수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굿모닝인천>에서 소비자 피해와 해결 사례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 어르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신모씨(연수3동, 60대, 남)는 2개월 전 유명가수의 무료공연이 있다고 하여 관람을 갔다가 만병통치라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적외선온열치료를 35만원에 샀다. 얼마 후 판매사원의 말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품이라는 TV뉴스를 보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서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이모씨(학익동, 60대, 여)는 부곡하와이 무료 관광에 따라 나섰다가 견학을 시켜 준다고 음성 소재 농장에 인도되어 거의 반강제로 건강식품을 33만원에 구입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바로 반품하려고 했으나 위약금으로 6만6천원을 요구해 역시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생활센터는 신모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수배하여 계약서 미교부 및 허위기만상술에 의한 판매임을 지적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전액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모씨의 사례는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로, 법에 따르면 구입 후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따라 내용증명으로 철회의사를 표명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이 빈번하다.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상대방의 친절에 쉽게 감동하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면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상술에는 무료 강연회, 무료 공연, 무료 관광, 식사제공을 빙자해 상품을 팔거나 무료체험소를 운영하여 의료용구 등을 파는 경우가 많다. 판매상품의 상당부분이 건강보조식품과 의료용구 등인데 이들 상품은 적게는 원가의 2~3배, 많게는 수 십배의 가격에 팔리고 있고, 그 효과도 믿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베푸는 호의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 한 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 한의사와 의논하고 처방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선택이다.

## 노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제품 구입 여부는 천천히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 영업사원이 선전하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계약하면 후회하기 쉽다. 가격이나 효능에 대해서 주변 친지나 가족과 상의한 후 천천히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 건강식품·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 ■공짜·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특히 무료 관광이나 식사 접대, 사은품 제공 등을 내세워 노인들을 모은 후 건강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한다.

### ■집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 ■계약관련 문제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담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 442-9872)

## 추운겨울 ‘과당~’ 생명 위험할 수도

글 \_ 백승정 (인천 한국병원 부원장)

한겨울에는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특히 빙판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 뼈, 어깨 뼈의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엉덩방아를 찢으면서 대퇴골 근 부위인 엉덩이 뼈(고관절)나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엉덩이 관절의 골절 발생빈도는 1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발표되었다.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길이 미끄러운데다 옷을 두 겹께 입어 민첩성이 떨어지므로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들은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어 경미한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골절은 쉽게 치료되지 않고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적절한 치료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고관절은 허벅지 뼈와 골반이 연결되는 부위로 빙판길을 걷다가 엉덩방아를 찢었을 때 골절이 올 수 있는데 뼈가 약한 여자는 남자보다 3배 이상 고관절 골절이 많이 생기고 이중 15% 가량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 임상적으로 엉덩이 뼈의 골절인 경우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회복기간이 약 6~12개월 정도 소요되며 회복되더라도 약 1/3만이 다치기 이전 상태로 활동이 가능하고 전신적인 합병증이 많이 동반된다.

골절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프고 붓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므로 환자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은 경미한 증상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움직일수록 점점 더 붓고 아프며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뼈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바로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면서 부러진 부위가 비뚤어진다. 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고 때로는 통증으로 인한 쇼크로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다.

골절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프고 붓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므로 환자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은 경미한 증상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움직일수록 점점 더 붓고 아프며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뼈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바로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면서 부러진 부위가 비뚤어진다. 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고 때로는 통증으로 인한 쇼크로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골절상을 입었을 때는 먼저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한다. 처음에는 낙상의 충격으로 증세를 잘 판단할 수 없어 몸을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 몸을 움직였을 때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감싼 후 주변에 있는 판자 등으로 부목을 대어 임시 고정하도록 한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운동은 가볍게 달리기, 빨리 걷기, 맨손체조, 스트레칭 등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이 좋으며 칼슘과 인 성분이 많이 함유된 우유, 생선, 멸치, 해조류 등을 평소에 많이 먹도록 한다.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걸어서는 안된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야 넘어지더라도 엉덩이 뼈나 허리 등의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다. 신발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신고 춥다고 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옷 속에 얼굴을 파묻고 걷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친 후에 좋은 치료를 받는 것 보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의 \_ 428-9411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

# 치어리더 이민숙

답띠 처녀의 온통 부산스러움과 생기, 활기 같은 것들과 ...

프

로 농구 인천 전자랜드 블랙 슬래머 팀 치어 리더 이민숙(李珉淑) 양의 영토는 온통 부산스러운 것들과 끊임없이 향기를 뿜어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고막을 찢는 음악 소리가 그렇고, 나폴거리느 그 얇고 현란한 공연복 자락이 그렇고, 온몸이, 사상이, 삶이 온통 소리와 움직임, 물에서 금방 건져낸 생선 같은 펄펄 뛰는 생기, 향기, 활기 그런 것들로만 차 있는 것이다. 채광창 안으로 떨어지는 낡은 겨울 햇빛조차도 그렇고, 거기 그 햇빛 속에 부유하고 있는 미세한 먼지들 하나하나의 반짝임마저도 그렇다.



장판지 근육이 조금 땅기고 간혹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기도 하지만, 또 아주 간혹 외롭고 이상한 밀물에 가슴이 찢기기도 하지만, 지금 살아 있는 것, 지금 웃고 있는 것, 지금 먹고 있는 만두국, 지금 들어야 하는 힙합의 음향은 지상 어느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을 이 겨울의 고요와 정밀(靜謐)과는 정반대, 화산 같은 열광이고 분출이고 아득한 높이에서의 곤두박질이고 향기로운 현기증이다.

더 말해 무엇 하라? 스물네 살짜리 답띠 아가씨가 아닌가. 하루 종일을 그렇게 살고도 남을 이 건강하고 어여쁜 처녀의 날개와 등뼈 부분을 이 방 안에서 살짝 훑쳐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목이 칼칼해지고 머리가 멍한 것이 아니냐. 한 묶음 안개꽃이나 손톱만큼 작은 국화 종자, 그런 꽃묶음의 어지러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혼곤히 쓰러져 잠드는 그날의 일기 속에는 더 비밀스런 향기가 나지 않았느냐.

“이따가 3시가 게임이거든요. 안양 SBS하고 시합하는데, 2시쯤 관중석에서 페이스 페인팅 서비스가 있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게임 시작 직전에 개막 공연, 그 다음에는 선수 소개, 그리고 게임 중에는 작전 타임 때, 그리고 3쿼터 마치고 나가서 율동, 그렇게 해요. 보통은 2시쯤에 8명이 모여서 게임 전 공연 리허설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다른 곳에 행사가 있어서 못해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1시가 훨씬 넘었는데도, 체육관 치어 리더 대기실에는 세 명의 아가씨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 인대가 늘어나 다리를 절뚝이는 연정(娟貞)이, 좀 전까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먼 눈빛으로 피곤한 얼굴을 하던 막내 선단(善丹)이, 그리고 민숙 양. 또 하나, 이들이 펄쩍 뛰어 오르며 율동을 할 때, 사이사이 짧은 음악을 담당한다는 차가운 눈빛의 모르는 아가씨 하나.

키가 1미터 73이니 74니 하는 이 다리가 한없이 긴 아가씨들이 슬슬 화장을 하고는 늦게 도착하는 언니들, 동료들을 위해 운동화와 공연복 따위를 꺼내 정해진 자리에 놓아 준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행사를 마



친, 서울 어디서 무슨 프로 야구팀 팬 사인회에 참석하고 온다는 몇 명의 또 활기찬 파도 떼가 문을 밀고 들어온다. 와! 코 속이 더욱 매캐해진다. 코피가 날지 모른다. 셔터를 눌러대던 사진 작가와 함께 문 밖으로 잠시 쫓겨난다. 참,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얼굴 화장도 해야 하지.

“솔직히요. 시 같은 거 읽은 적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집에 가면 쓰러지거든요. 혹 가다가 SF 소설이나 한 권 읽을까... 새해에는 한번 읽어 볼게요.”

코트로 들어가는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에 질문을 잘못 던지고 말았다. ‘공화국’ 어디에도 시와 시인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또 깜빡 잊은 것이다. 그것은 2천 몇 백 년 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연습 시간, 문경은의 3점 슛이 림을 통과하고 폭죽이 터지는 듯한 수백 명의 함성이 체육관 천장을 흔든다. 그렇다. 저것이 시(詩)인 것이다. 현대의 시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흔들림 없이 림을 통과하는 송곳 같기도 하고 쾌락 같기도 한, 대중의 ‘소요(騷擾) 사태’ 비슷한 것이다. 민숙 양은 몸의 울동으로 또 그 폭발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보람 있어요. 후회는 없지만 피곤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아주 화려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뭐, 조금 무질서한 부분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한 마디로 오해지요. 꼭 그렇게 화려할 것도 없는 직업이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건실하고 건강하게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불미스런 행동이나 몸가짐 절대 우리 스스로 용납 안 해요.” 민숙 양은 ‘그건 이런 직업 가진 우리 모두 공멸(共滅)의 길, 곧장 망하는 길이잖아요’ 라고 뒷말을 붙이고 싶은 것이다.

눈 그친 나뭇가지 달빛처럼 서늘하고, 푹푹하고, 아무진 아가씨다. 그렇구나. 이 어린 아가씨들도 제 자신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구나. 종아리에 뿌린 파스 냄새처럼 찌를 듯 선명하게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부산스럽고 와글거리면서도 풀잎의 싱싱함을 잃지 않고 있는, 마냥 천방지축 같으면서도 저토록 어른스러운, 활기와 함께 몸속 어디엔가 다소곳하고 풋풋한 여자의 예쁨을 가지고 있는 파랑새떼들.

이제 시합이 시작된다. 홈팀 코트, 엔드 라인 바로 뒤 치어 리더들 앉는 자리에 동료들과 줄지어 앉아서 두 손에 든 종이 꽃술을 흔들고, 작전 타임을 기다려야 한다. 오늘은 영화 속의 서양 수도승들처럼 머리까지 덮는 검은 망토를 몸에 걸치고 특이한 춤을 한바탕 추었다. 다음에는 다시 붉은 해트를 쓰고 나와 아주 발랄하게 울동을 마쳤다. 그것으로 게임 전 공연은 끝이 났다. 20초짜리 작전 타임에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흥을 돋워야 한다. 오늘은 다른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처음 3, 4분간, 잘못해서 지는 날이면 꼴찌로 떨어지기 때문에 긴장한 탓인지 양 팀 모두 득점을 올리지 못한다. 그러다가 11-8로 앞서던 전자랜드가 거꾸 실점을 하는 바람에 작전 타임. 로마 병사가 입는 가죽 띠로 만든 짧은 스커트 같은 것을 입고 몸을 흔든다. 순식간에 다시 게임 시작을 알리는 버저가 울린다.

“농구는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정신없이 금세 4쿼터가 끝이 나요. 그런데 야구는 보기에는 여유가 있지만 아주 길고 지루해요. 어떤 날 연장전까지 하면 4시간 넘게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날은 완전 녹초가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음악만 나오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것이 기초가 되어 체력은 문제가 없다. 일 년 내내 야구장으로 농구장으로, 그리고 또 가끔가끔 특별한 이벤트를 맡는, 그야말로 몸통이 하나로 버텨 내는 육체적 중노동이지만 28살쯤까지는 계속하고 싶단다. 그때쯤 결혼해서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

3쿼터까지는 근소하지만 인천 팀이 이기고 있다. 이제 가야지. 저 꽃송이들이 꽃송이를 들고 쿼터 사이에 잠시 뛰어 오르고 있다. 예쁘다. 향기롭다. 오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민숙 양은 긴 거울 앞에 서서 열심히 눈썹을 붙이고 입술을 칠하고 하면서도 미리 이런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멘트 덩어리, 함성과 소란과 먼지와 폭풍과 활기와 말할 수 없는 향기 같은 것들이 마구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체육관 안에서도 비릿한 풀내음이 났다.

“우리가 코트에 들어가면 그냥 가실 거죠? 그럼 미리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1월호에 나가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이쁘게 써 주세요. 정말 오늘 즐거웠어요. 안녕히 가세요. 참, 책 나오면 여기 소영이한테 전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랜드 팬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닭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예쁜 닭띠 아가씨야, 너도 복 많이 받으렴.

글 \_ 김윤식(시인 · eooul@hanmail.net)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 내 영혼은 물빛 라일락

‘네가 성실한 마음으로 너를 대하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너를 대할 때 너와 나의 만남은 성실과 성실의 만남이요 참과 참의 만남이다.’

(안병욱 에세이집 중에서)

스무살 시절에 안병욱 교수님의 에세이집을 읽고 내 인생의 좌우명을 발견했지요. 그 뒤 늘 가슴에 새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며 삶의 지표가 되길 바랬습니다. 또한 우리집 가훈으로 삼아서 늘 열심히 살아가도록 한답니다. 여기에 소개합니다.

굿모닝 인천을 애독하면서 많은 시정 활동과 소식을 알고 지냅니다. 애쓰시는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희망찬 인천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 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세요.

**이명순** (남구 용현동)

## 처음으로 돌아가라

까치네는 오늘 아침에도 부부 싸움을 벌였다. “까치 까치 까치” “까치 까치 까치”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말다툼이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 까치가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 동지에 불평 귀신이 붙은 것 같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주 싸울 리가 없어.”

아내 까치 또한 맛장구를 쳤다. “맞아요. 걱정 귀신, 불평 귀신 다 붙어 있는 거 같아요. 동지에 오면 걱정 불평이 그냥 쏟아지니...” 부부 까치는 이튿날 산까지 도사를 찾아갔다.

“처음엔 저희 집이 인락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 불평 동지입니다. 귀신이 붙은 것 같사오니 그것들을 쫓아내는 비방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산까지 도사가 말했다.

“우리들은 기쁨을 ‘까치 까치 까치’ 하지요. 마찬가지로 불평도 ‘까치 까치 까치’ 하지요. 이 기쁨과 불평도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귀신이 시켜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 한테 있는 것이지요. 다만 기쁨은 첫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반해 불평은 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동지를 틀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걷히고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재봉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중)

정말 그런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의 마음가짐을 생각하면 모든 불평불만이 사라질 것 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 옵니다. 2005년에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생활 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모두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웃음 잃지 말며 삽시다.

**김상옥** (부평구 부개동)

## 희망과 기쁨

“이를테면,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네 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썸백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흔히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책인지라 아이들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저도 그랬구요.

아이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길래,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을 만나기 전의 기분을 떠올려 보라고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지, 그런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 놓고 기다린다면 그 때의 기분은 어떨지. 요즘 불경기라고 다들 살기 힘들다네요. 바쁘고 힘든 세상이지만, 가끔 이런 말들을 듣고 빙그레 웃어 봅니다. 이런 행복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마음만은 부자인 사람일겁니다. 누군가가 온다는 희망과 기쁨,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희망, 2005년은 올해보다 더욱 희망으로 빛나는 한 해이길 빕니다. 참, 제가 늘 마음에 담고 다니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 때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조선시대의 유한준이라는 유학자가 하신 말씀이래요. 많이 보고, 느끼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에 발췌하였습니다.

**이미선** (부평구 청천2동)

## 외양

말을 살핌은 비쩍 마른 데서 놓치게 되고 / 선비를 알아봄은 가난에서 실수가 생긴다. (相馬失之慳, 相士失之貧)

(김득신(김득신, 1604~1684~), <종남총지(終南叢之)>)

<삼국사기> <온달전>을 보면, 처음 온달이 말을 살 때 공주는 이렇게 말한다. ‘삼가 시장 사람의 말은 사지 마시고, 나라 말로 병들어 비쩍 말라 쫓겨난 놈을 고른 뒤에 이것을 사십시오.’

겉보기에 살지고 번드르르한 말은 시장 사람의 말이다. 병들어 비쩍 말라 빠가 다 드러난 말은 나라의 마굿간에 있다가 병들어 쫓겨난 말이다. 하지만 혈통이 다르다. 시장 사람 말은 기껏해야 마차 끄는 데만 쓸 수 있지만 전장에 나가 싸우는 장수의 말이 될 수 없다. 세상에 천리마가 없었던 적은 없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백락이 없었을 뿐이다. 혈통 좋은 천리마도 기르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비루먹어 병든 말이 된다. 겉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다. 비쩍 말랐다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말 가운데 숨은 그릇이 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언제나 겉데기만 쫓아다닌다. 번드르르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속는다.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김기수** (동구 송현동)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만리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타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주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칭찬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고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제가 대학입시로 힘들었던 고3때 우연히 어떤 문학 프로그램에서 이 시를 보게 되었어요. 그 때는 여자 성우 분이 낭독도 함께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명 깊게 시를 끝까지 다 들은 뒤에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답니다. 저도 시속에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 하며 다짐했던 생각도 나네요..

한창 꿈도 많고 힘들었던 고3 수험생 시절에 가슴 깊이 다가왔던 아래 함석헌 님의 시를 2005년은 더욱더 나은 해 되시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혜영** (계양구 계산2동)

다음 달 테마는 ...

‘눈(雪)’입니다

‘눈(雪)’에 얽힌 재미있는 글(200자 원고지 3매 이내)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월 20일까지 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 네잎클로버

나는 알지요, 해님은 금빛으로 반짝이고요

벚꽃은 소담하게 피어있는데

네잎클로버가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그 구석을 알고 있지요

네 앞중 한 잎은 희망이고요

나머지 두 잎은 신앙과 사랑

마지막 하나는 행운의 잎

찾아보면 있는 곳을 알게 되지요

희망, 신앙, 사랑을 몸에 지니고

굳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한 후에 기다리면

그때는 그곳을 알게 되지요 (히진순)

이처럼 새해에는 희망, 신앙, 사랑, 행운을 지녀보려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를 제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희망을 잃지 않겠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며 또한 멋진 사랑도 한번쯤은 해봐야겠죠? 행운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네잎클로버가 있는 곳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은 아닌지요?

**조윤주** (강화군 강화읍)

## 새해 달력 보셨습니까?

새 달력을 받으면 누구나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없나, 연휴는 몇 번이나 되고 설과 추석은 며칠이나 쉬나...’

올해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포개지는 날들이 유난히 많지요. 벌써부터 실망의 표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섭섭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숨어있는 경축일들이 있으니까요.

자, 빨간 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둘째가 대학생 되는 날’

‘그녀와 만난지 100일째 되는 날’

‘큰애가 제대해 오는 날’

‘할아버지 칠순 잔치날’

‘금연한지 1년째 되는 날’

공휴일보다 반갑고 기쁜 날들이 하나 둘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날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 것입니다.

새해 달력을 받은 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희망의 날, 행복의 날을 찾아보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만들어보세요.

(SK텔레콤의 새로운 대한민국이야기 (신세번째))

**윤승환** (연수구 동춘2동)



## 틈새시간을 활용하자

1.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걸음수를 늘려라
2. 버스 2~3정거장은 무조건 걷는다
3. 점심때 10분이상 떨어진 식당에서 식사한다
4. 5층 이하 층은 허리를 펴고 올라간다
5. 쇼핑이나 시장볼 때 한번에 구입하지 않는다
6. 주말에 가족과 산책, 등산을 꼭 한다
7. 세차, 집안 청소는 본인이 꼭 한다
8.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까지 걸어간다
9. 모임할 때는 실내보다 야외에서 하도록 한다
10. 문화생활을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걷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출처 <좋은 건강>)

양지훈 (중구 향동)

## 복은...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데서 생긴다.  
그리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참 좋은 글이라 수첩에 적어두고 보곤했는데  
어느 책에 나온 글인지는 잘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오현숙 (부평구 산곡3동)

## 끝이 주는 의미

끝이 시작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끝을 성취한 자에게만 끝은 시작되는 것이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 중도에서 주저앉는 자에겐 끝이 없다. 때문에 그들에겐 시작이 없게 된다. 맨 끝에서 달리는 선수가 끝짜라도 열심히 뛰어 끝을 보여주는 미덕은 일등과 같은 갈채를 받는 것이다.

(출처 : 좋은생각(신달자))

빈은하 (남동구 간석1동)



2004년  
1월 1일 입니다

스물일곱의 마지막날을 보신각 타종식을 보며 보냈습니다. 종소리가 폭죽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고 폭죽 쏠 때 생기는 분진이 눈에 떨어져 눈을 못뜨기도 했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김태홍 (부평구 삼산동)



32년만에...

앨범을 뒤적이다 보니 아주 오래전 자유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그 추억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남겨 주고 싶어 찰칵... 더불어 얼마남지 않은 2004년도 정리하며 새해에는 더 행복하자는 작은 바램과 함께.

박미숙 (남구 주안8동)



멋들어진 한해 마무리

가운데의 우리아들 진지한 표정 보이시나요? 연말하면 생각나는 것이 유치원 재롱잔치죠. 며칠전 아이의 학원에서 재롱잔치가 있었어요. 5살짜리 우리집 막둥이가 넘넘 멋지게 해냈죠. 진지한 표정의 율아들 쩡!!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잘 다니길 바래봅니다!!

최정숙 (남구 주안8동)



울고 있는 마리아

성탄절 시즌이 오면 교회에서는 성극을 많이 공연합니다. 우리교회에서도 성극을 했는데 제 동생의 연기가 너무 실감나서 모두 울었습니다.

이준호(연수구 옥련동)

고양이의 온돌방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고생이죠.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금방 운행을 마친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몸을 녹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집 나가래?

한정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지리산 등반

91년도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네요. 대학교를 들어간 첫해인 1991년. 친구들과 지리산 등반에 나섰었지요. 일출을 보겠다는 일념하에 올랐던 지리산. 그길에 추웠던 것으로 아직도 기억되지만, 대학 1학년을 마무리 하는 맘으로 등반했던 지리산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정광 (남구 관교동)



벽화 눈사람



올해는 정말 눈이 귀하네요. 눈이 안오니까 눈사람 만들 일이 없네요. 대신 장난꾸러기들이 동네 담장에 눈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투기 같기도 하고...

박세령 (남구 관교동)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의 아기 세례식



성탄절을 맞아해 교회에서 아기들에게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저 아기로 인해 가정이 행복해지길 빌어봅니다. 역광으로 찍힌 사진이 그럴 듯 하죠?

김봉순(연수구 연수1동)

독자의 편지



## <굿모닝인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문학정보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장명숙이라고 합니다. 매달 저희 학교로 배달되어 오는 <굿모닝인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마침 제 자리 옆에 저희 학교로 오는 모든 인쇄물을 배치해 두고 있거든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볼만한 여행지라든지, 그달에 전시되는 전시물 소개, 인천의 인물... 등. 올 봄에는 <굿모닝인천>을 손에 들고 서해의 섬 <모도>를 찾아 잡지에 소개된 장소와 배경을 찾아 똑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드리하는 것은 중국, 캄보디아, 캐나다 등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어(중국어)판 <굿모닝인천>을 보내 주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덕분에 제 어깨까지 으쓱해집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은 비록 앞면뿐이지만 자신의 언어로 인쇄된 한국 잡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신기하고 기쁘고 더욱이 무료로 자신들에게 전달된다는 데에서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저는 덕분에 인천 자랑도, 우리 대한민국 자랑도 할 수 있어서 무척 자랑스럽구요.

그들 중에는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에 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굿모닝인천>을 통해 자극을 받고, 또 준비를 한다는 인사를 받을 때면 제 자신의 일인 양 기뻐지구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잡지 만들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굿모닝인천> 가족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05년 더 새로워지고 더 알차진 <굿모닝인천>을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2004년 12월 9일 장명숙 드립니다.

## 롱아일랜드대학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 자리하고 있는 롱아일랜드대학교의 코리아 센터에서 문안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보내주신 <굿모닝인천>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서나마 고국의 소식을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이곳의 외국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들로 구성되어있어 짜임새 있게 인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 홍보지의 지속적인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창보 (롱아일랜드대학교 코리아센터)



## 개인회원을 위한 행운 대축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규 개인 인터넷(www.nhic.or.kr) 회원으로 가입하면 건강나이, 보험료관련 정보 확인, 사이버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 이미 회원에 가입한 회원은 정보갱신을 위해 간단한 인적사항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신규 개인인터넷 회원 : 디지털카메라, MP3, 문화상품권
- 기 가입회원 : 주유상품권, MP3, 주유상품권
- 행사기간 : 2005년 1월 10일까지
- 당첨자 발표 : 2005년 1월 20일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452-7114)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상환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동차 등록·이전과 각종 인·허가 및 관급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공채대금은 상·하수도,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어 우리시의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쓰여집니다. 2000년도에 매입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

오니, 공채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할 공채 : 2000. 1. 1 ~ 2000. 12. 31 기간동안 매입한 공채
  - 상환개시일 : 2005. 1. 1일부터 (매입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후 지급)
  - 상환조건 : 연 6% 복리, 5년 거치 일시상환
  - 상환은행
    - (구) 경기은행 발행분 : 한미은행 모든 점포
    - 농협발행분 : 전국 농협 (단위조합 포함) 모든 점포
  - 청구시 지침물
    - 개인 : 매입증서, 주민등록증, 도장
    - 법인 :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상환금수령자 주민등록증 (채권등록필증을 가지고 원리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증권예약원 등록인감 지참)
  - 기타사항
    - 상환금 청구 소멸시효 : 매입하신 날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공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 문의 \_ 시 예산담당관실 (440-2254)

## 버려지는 음식물, 그 안에 경제와 환경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전면 반입 금지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악취나 해충·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매립지의 수명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한 차량이 적발될 경우 당해 차량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회송조치를 당하는 한편 일정 기간동안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게 돼 해당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대로 가면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만이 쓰레기 대란을 막는 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로 선진 시민의식 보여줍시다.



-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단속 :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착시 까지 지속 단속 실시
  - 준수사항
    - 일반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 제외대상 소형음식점은 음식물전용봉투 또는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 분리배출
    -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위탁처리(자가처리, 위탁처리)
    - 아파트는 전용수거용기 이용 분리수거 실시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물기를 짜서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배출
    - 비닐류, 병뚜껑, 은박지, 젓가락, 이쑤시게 등 이물질 반드시 제거
    - 큰 뼈다귀, 조개, 계란 등 각종 껍질은 일반 중량제봉투에 배출
  - 음식물이 혼합된 쓰레기 중량제 봉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절대 수거하지 않습니다.
- 문의 \_ 시 청소행정과 (440-3572)

##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기본요금이 할인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과 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택시 운임을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2005년 1월 1일부터는 택시 교통카드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승객들에게는 기본요금에서 100원을 할인해 주고, 택시 회사에는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05년 연중 (단, 택시요금 인상시 지원 중단)
  - 지원대상 : 관내(시내지역) 중형택시 (선·후불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차량)
  - 지원 내역 (1일 영업횟수의 10% 지원) : 카드결제 수수료 2.5%와 택시요금 카드 결제시 기본요금 할인액 (건당 100원)
  - 카드사용 우수업체 및 운전자에 인센티브 제공 : 우수업체 노·사 4명, 택시조합 2명 등 현지시찰, 카드결제 우수 개인택시 운전자 포상
-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912)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모집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및 중구통상CEO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은 국내 최고의 강사진과 수준 높은 강의, 경영·경제·교양 등 각 분야의 최신 지식 습득, 다양한 원우회 활동을 통한 친밀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학기 중 특별세미나, 부부특강 및 해외연수 실시 등을 자랑합니다.

### 〈최고경영자(CEO)과정〉

- 모집대상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입법·사법·행정의 고위관리자
  - 비영리단체의 임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분
- 교육형태
  - 1년 과정 2학기제 (총 30주) 매주 1회(수요일 18:30 ~ 21:40)

### 〈국통상CEO과정〉

- 모집대상
  - 중국에 관심있는 기업체 경영자 및 임직원, 고위공무원, 시·구 의원
  - 기타 세무, 법무, 언론, 프리랜서 등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
- 교육형태
  - 1년 과정 2학기제 (총30주) ◆ 매주 1회(월요일) 출석 중국 어회화 : 18:00~19:00/ 초경 강의 : 19:00 ~ 22:00

### 〈공통〉

- 전형일정
  - 원서교부/접수 : 1월 3일(월) ~ 28일(금)
  - 합격자 발표 : 2월 14일(월)
  - 합격자 등록 : 2월 14일(월) ~ 25일(금)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문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 www.incheon.ac.kr)

## 주부들을 위한 일성여자 중·고교 신입생 모집

일성여자 중·고등학교는 주부들을 위한 2년제 학력 인정학교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을 대상으로 2005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중학교 : 오전반 (09:40~14:15) 220명 / 오후반 (13:30~17:45) 165명
    - 고등학교 : 오전반 (09:40~14:15) 165명 / 오후반 (13:30~17:45) 110명
  - 지원자격
    - 중학교 :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중검) 합격자, 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이상의 동등학교를 졸업한 자,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고검)합격자, 교육감이 지정하는 중학교 이상의 동등학교를 졸업한 자,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형방법 : 본교 선발 기준에 의거 합격자 선발, 현재 선착순 접수 중
- 문의 \_ 일성여자 중·고교 행정실 (02-761-0069, 02-704-7402, www.ajummaschool.com)

##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모금기간 : 2004년 12월 1일 ~ 2005년 1월 31일
  - 모금창구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812-6555), 언론사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인일보, ICN인천방송, iTV경인방송), 각 시중은행 지점 및 농협, 수협, 우체국
  - 희망 2004 이웃돕기캠페인 참여방법
    - 사랑의 전화 060-700-1212 (1통화 2,000원)
    - 동(면)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지로용지를 통한 참여
    - 각 시중은행 ‘사랑의 계좌’를 통한 성금접수
- 사랑의 계좌 현황 (예금주 : 인천광역시공동모금회)  
국민은행 208-01-0505-298 / 한미은행 301-52838-257 / 우리은행 106-155901-13-101 / 농협 147-01-182301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54)

## 터미널시네마 〈알렉산더〉 상영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에서는 12월 30일부터 〈알렉산더〉를 상영합니다. 상영 프로그램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람요금 : 일반 6천5백원, 학생 5천5백원
  - 주차편의
    - 남측·서측의 터미널 직영 주차장 : 50%할인
    - 동측·지하의 신세계 주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증 소지자 무료
-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 100%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2005년도 국비신입생모집

• 모집인원 (단위:명)

| 공 과      | 주간1년 | 주간6월 | 야간6월 |
|----------|------|------|------|
| 컴퓨터응용기계  | 150  | 30   | 30   |
| 산 업 설 비  | 60   |      | 30   |
| 재 료 응 용  | 60   |      |      |
| 전 기 제 어  | 90   |      |      |
| 전 자 통 신  | 90   |      |      |
| 컴퓨터출판디자인 | 40   |      |      |
| 스크린 인쇄   | 30   |      |      |
| 모 델 링    | 25   | 15   |      |
| 멀티미디어    | 40   |      | 30   |

• 모집일정

| 구 분   | 주간 1년   | 주 · 야간 6월 |
|-------|---------|-----------|
| 원서접수  | 2.23 까지 | 3.29까지    |
| 면접일시  | 2.24    | 3.30      |
| 합격발표  | 2.28    | 4. 1      |
| 입 학 일 | 3. 2    | 4. 4      |

• 제출서류 및 입학자격

-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2매)
- 입학자격 : 15세 이상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

• 교육생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정부지원
- 원룸식 기숙사 및 식사 무료제공
- 매월 교육훈련수당, 교통비 지급
- 국가기술자격취득(필기시험 면제)
- 우수업체 취업 및 사후지도

문의 \_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

<http://vt-incheon.hrdkorea.or.kr> (450-0310~14)

### 인하대병원 소아의 만성기침 공개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공개강좌를 매달 열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제는 '소아의 만성기침'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월 25일(화) 15:00~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소아의 만성기침.
- 강사교수 : 소아과 김정희 교수
- 기타 :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무료 주차권이 발급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890-2640~2)

문화·예술 공연에 흠뻑 빠져보길 원하십니까?

## 2005 시민문화예술 모니터로 활동하세요

인천시 문화예술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시민 모니터링 제도는 각종 지원을 받는 공연활동, 미술전시 및 축제에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지원금의 공공성과 지원효과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 신청기간 : 2005년 1월 1일 ~ 31일
- 신청자격 :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 (단, 문화예술단체 종사자는 제외함)
- 모집분야 : 공연예술, 미술전시, 지역축제 등
- 모집인원 : 총 100명 이내
- 신청방법 : 인천의제 21 홈페이지 (<http://www.iagenda21.or.kr>) 자료실 혹은 인천 시청홈페이지 ([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 새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파일첨부하여 이메일 ([moosarang@empas.com](mailto:moosarang@empas.com))로 신청
- 시민모니터링 요원이 되시면
  - 아이디어카드를 발급해드리고 각종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합니다.
  - 전문강사를 통해 문화 예술 관련 교육을 일정기간 실시합니다.
  - 매월 정기모임과 연 1회의 workshop (유명한 지역 축제 관람 등)도 가질 예정입니다.

담당 \_ 인천의제 21실천협의회 홍보문화분과 간사 한정하 (011-9134-4695)

문의 \_ 인천의제 21사무실 433-2122 / FAX. 440-1543

※ 1차(서류심사)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일 공고 : 2월 7일(월요일)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시민모니터회 홈페이지(<http://www.monitorin.net>) 공지사항에 알림

여기가 거기 ① 북성동 차이나타운



‘화창태’와 ‘회빈각’ 등 채소상과 청요리점들이 들어선 1930년대 청관풍경 (화도진도서관 제공)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중국인 거리이다. 한때 1만

명의 화교들이 거주하다가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급속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최근 다시 부흥기를 맞고 있다. ‘자장면의 발상지’라는 명성

에 걸맞게 길 양편으로 늘어선 자장면집들과 중국인의 절이자 옛 쿵푸 도장

이었던 의선당을 비롯해 세계최초로 자장면을 만든 공화춘 건물, 화교학교

등 아직도 중국풍을 그대로 간직한 옛 건물들이 골목에 즐비해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옛 영화를 꿈꾸며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거리 (2004년 · 사진가 최용백 작품)